

리아호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인가?

그분은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교리와 성약 76:22)

블레이크 로니 부부 제공



내 아버지의 집, 알 라운드

이것이 사기 33년경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바리본 성전과 인도니아 요새의 광경이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옛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싼 성벽뿐만 아니라 들꽃과 올리브 나무들로 뒤덮인 언덕을 볼 수 있다.

저는 항상 그분을 생각합니다

저는 100세가 넘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해 속죄하신 구주에 대한 강한 간증을 키워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 남짓한 시간 동안에는, 저는 건강상의 문제로 교회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집에서 기도하고 신권 소유자들이 가져다주는 성찬을 취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제 육신이 힘을 잃어 갈수록, 오히려 제 영혼은 더욱 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통해, 그리고 제가 취하는 성찬을 통해, 저는 구주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엄청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구주에 대한 제 간증은 결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십시오.

이수강, 한국

리아호나 특별호 독자들을 환영하며

경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성역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는 그분께서 얼마나 큰 사랑의 모범을 보이셨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분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성역, 가르침, 그리고 위대한 속죄의 희생을 통해 희망, 병 고침, 용서를 베푸는 가운데 인간의 약점이 아닌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러한 구주,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하는 소망과 연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이번 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푸셨는지를 가르치는 살아 있는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서 그 메시지를 찾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나아가고, 그분에게서 배우며, 그분을 따르라는 초대를 받아들임으로써 인생에 축복을 받은 평범한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그러한 메시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메시지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고 마음에 새기며 다른 사람들과 나눌 것을 제안합니다.

— 편집인



표지
앞: 소년과 함께한 그리스도의 일부, 칼 하인리히 블로호 그림. 뒤: 부활절 백합, 사진 촬영, 매튜 라이어



4

메시지

제일회장단 메시지

4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그곳에는 세상의 구속주께서 확고부동하게 서 계십니다.

방문 교육 메시지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적합한 기사를 선택하여 나누시기 바랍니다.



42

특집 기사

8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후기 선지자들의 증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15명의 교회 회장들은 모두 구주에 대해 증거했다.

12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주,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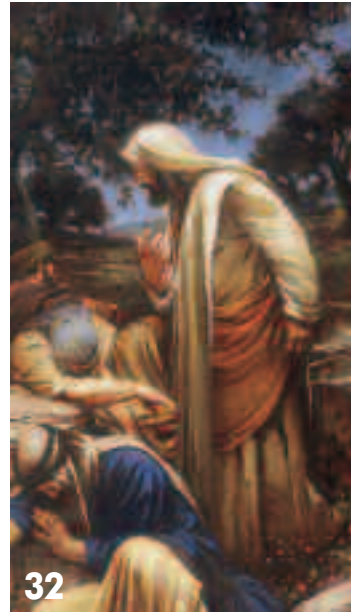
20 “나는 길어요”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참 포도나무,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그분이 누구이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58



32

가르치셨습니다.

24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러셀 엠 넬슨 장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이생에서 축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승영에 필수적입니다.

31 에밀리오의 신앙

라몬 라미레즈

에밀리오의 상태는 매일 악화되었고 의사들은 치료할 방법을 찾지 못했다. 하지만 이 청년의 구주에 대한 신앙은 모든 것을 변화시켰다.

32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몸소 이루신 속죄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이 세상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39 속죄의 호력

익명

가장 겸손해진 순간, 알렉스는 언제든 도움을 청하기 위해 기도할 수 있음을 기억했다.

42 살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사도들의 간증

구주의 삶과 성역을 묘사하는 미술품들과 현대 사도들의 말씀

48 그리스도께로 나아옴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말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대이며,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대입니다.

53 나는 구원 받았는가?

사를롯 굿맨 맥이완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라는 제안을 받았을 때,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나중에서야 나는 이미 내가 그분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54 우리가 믿는 것

후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58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64 찬송을 통해 드리는 예배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며, 구주의 회복된 복음을 배우고, 그분의 대속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68 평범하고 소중한 진리들

성경의 가르침과 후기 선지자들 및 경전의 가르침을 통해 본 구주에 대한 교리들



것을 읽어보고

이번 호에 실린 자료들을 여러 언어로 보려면 www.lds.org를 방문하십시오.



24

이번 호를 활용함

예수 그리스도의 호칭을 이해함. 경전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계시다. 그 중 몇 가지 이름이 이번 호에 나와 있다. 그분의 이름들을 알고 그 이름들이 자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 어떻게 느끼게 되는가?

구주에 대해 간증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58쪽)을 읽은 후, 여러분이 그분의 증인이 될 수 있고 실제로 증인이 된 몇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본다. 이러한 표현들은 여러분의 신앙을 어떻게 강화하는가?

복음을 가르치고 배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를 제공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www.ldscatalog.com이나 지역 배부 센터를 방문하십시오.



75

특집란

74 포스터

75 후기 성도의 소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들을 통해 느낀 희망에 대한 간증들

80 예수님처럼 되기 위해 노력함

어린이들이 구주의 모범을 따르면서 가졌던 경험들

이번 호의 복음 주제들

간증, 4, 8, 20, 42, 58	예수 그리스도, 모범, 48, 58,
감사, 64	68, 74, 80
개종, 39, 48	예수 그리스도, 신앙, 4, 8,
겸손, 12	24, 31, 48, 54, 68, 74, 75
경전, 54, 68	예수 그리스도, 은혜, 32, 53,
구출, 75	54, 68
병 고침, 31	예수 그리스도, 칭호, 4, 12,
봉사, 75, 80	20, 42, 68
부활, 32, 54	음악, 64, 75
부활절, 75	조셉 스미스, 54, 68
사도, 42	죽음, 75
선교 사업, 58, 80	창조, 12, 24
선지자, 8, 68	침례, 39, 48, 53
선택의지, 12	타락, 32
성약, 48	행복, 48
성찬, 39	회개, 12, 39
속죄, 12, 32, 39, 64	희생, 32
순종, 58, 64	구주에 대해 더 많은

2008년 3월호, 제45권, 제3호
리아호나 02283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고든 비 힐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심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트 페리, 라셀 엠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블라드, 조셉 비 워스런,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해일스, 제프리 알 홀런드,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편집인: 제이 이 잰슨

고문: 게리 제이 콜먼, 요시히코 가구찌, 제럴드 앤 렌드, 더블류 더글라스 샬웨이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엠 프리스네흐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아담 시 울슨

보조 편집인: 수잔 배넷

편집 스태프: 크리스티 반즈, 린다 스탈 쿠퍼,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라켈 포터 곤트, 캐리 카스텐, 제니퍼 맨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셸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비버만 홀슨, 조슈아 제이 피기, 킴벌리 리드, 리처드 엠 롬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잘 투서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엘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킵트 벤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엘리 알 아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온,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리처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스티븐스 커비, 지니 제이 넬슨, 랜달 제이 픽스톤

사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저리쿠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04호, 제45권, 제3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8년 3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 윤 환

편집인: 박 환 호

번역 책임자: 박 환 수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진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소득/지방세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를 출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비아어, 서모니아어, 세투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질리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카타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구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히타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8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March 2008 Vol. 32 No. 3.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세상을 다스리시려 다시 오실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우편에서 계신,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약 2000년 전, 인류의 구속주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어린 아기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리아와 요셉은 시므온과 안나로부터 세상의 구주가 되실 어린 아기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유년기 대부분을 갈릴리 나사렛에서 보내셨습니다.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그분은 다시 성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학자들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았으며 “그들이 그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에게 묻기도”(조성, 누가복음 2:46) 했습니다.

예수님은 청년으로 성장하기까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지셨습니다.(누가복음 2:52) 그분은 “모든 의를 이루”기(마태복음 3:15) 위해 요단 강에서 요한에 의해 침례를 받으셨으며, 성역을 베푸시기에 앞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가르치시고, 병 고치시며, 축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하신 여호와

예수님은 참으로 구약전서의 위대하신 여호와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높으신 하늘

보좌를 떠나 자신을 낮추셔서 가장 미천한 환경에서 태어난 아기로 지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의 탄생은 이미 수세기 전에 이사야에 의해 예언된 바 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이사야 9:6)

우리가 엄숙하게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시자 요한이 말했듯이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합니다.”(요한계시록 1:5~6)

세상의 구주

예수님은 예나 지금이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분은 병든 자를 낫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며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못 듣는 자를 듣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성역을
베푸시기에
앞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시고
사탄으로부터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위대한 삶이나
장엄한 죽음, 혹은 전 인류를
위한 그분의 선물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속죄를 이루셨으며 그 업적의 위대함은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누가는 그 고통이 너무도 커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누가복음 22:44) 기록했으며, 이러한 육체적인 현상은 물론경과 교리와 성약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모사이야서 3:7; 교리와 성약 19:18 참조) 겿세마네와 그곳에서 불과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던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고통은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의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시험과 … 고통, 주림, 갈증과 피로”였다고(모사이야서 3:7) 베냐민 왕은 말했습니다.

겿세마네에서의 고난을 겪으신 후 그분에 대한

체포와 재판, 선고, 그리고 말로 다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이 뒤따랐으며, 그 후 요셉의 무덤에의 매장, 부활을 통한 승리가 이어졌습니다. 2천 년 전에 몸을 낮추고 베들레헴의 아기로 태어나 이스라엘의 흙 길을 걸으셨던 예수님은 전능하신 주, 만왕의 왕이 되셨으며 만인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이가 되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의 위대한 삶과 장엄한 죽음,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진 그분의 선물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백부장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마가복음 15:39)라고 말했듯이 우리도 이를 의심 없이 외치는 바입니다.

우리의 살아 계신 주님

성경은 구대륙에서의 성약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증거하는 또 하나의 음성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신대륙에서의 성약인 몰몬경입니다. 이 책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선포하시며 그분의 부활하신 아들을 소개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제3니파이 11:7) 이 성스러운 선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승천하신 우리의 구주께서 그분의 “다른 양들”(요한복음 10:16) 일부에게 베푸신 성약에 대한 기사가 시작됩니다. 몰몬경이 그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분의 구속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받을 수 있는 영원한 축복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의 자손과 또한 우리의 형제들을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앎이라. ...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니파이후서 25:23, 26)

이와 더불어 현대의 선지자들 역시 다음과 같이 선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신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 예수님은 교리와 성약에서 자신의 성스러운 임무를 명확히 밝히시고 증거하셨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그리스도 주니라. 그러하도다. 참으로 나는 그니, 시작과 끝이요, 세상의 구속주니라”(교리와 성약 19:1)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시요 선한 목자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 나를 따르라.”(마태복음 19:21)

모퉁잇돌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받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퉁잇돌이십니다.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니다.(사도행전 4:12 참조) 그분은 우리 구원의 근원이 되시며 영생을 가져다주시는

분입니다.(히브리서 5:9 참조) 예수님과 비견할 만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으며 미래에도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선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분의 아들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과 그분의 교회에 대한 우두머리시며 확고부동한 모퉁잇돌이십니다.

신앙의 초점

우리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것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위대한 업적을 성취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커다란 실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기쁨과 즐거움과 건강과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하는가 하면 다른 이들은 병고와 슬픔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아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되든, 마치 밤하늘의 북극성처럼, 그곳에는 세상의 구속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불멸의 삶의 닻이 되시어 확고부동하게 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구원의 반석이자,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위안이시며, 우리 신앙의 분명한 초점이십니다.

맑은 날이나 흐린 날이나 우리는 한결같이 그분만을 바라보며, 그분은 언제나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미소를 지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중심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버지의 장자이시며 육으로 나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고린도전서 15:20) 그분은 또한 “땅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려고”(교리와 성약 76:63; 미가 4:7; 요한계시록 11:15 참조) 다시 오실 주님입니다.

이 지상에 그분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버금가는 희생을 하거나 그분의 업적에 버금가는 축복을 가져다준 이도 없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니다. 저는 한 치의 머뭇거림이나 양보 없이 그분의 신성을 증거합니다. 저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저는 존경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우편에 서 계신, 우리의 왕이요 주님이요 살아 계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은 찬란하게 빛나고 경이로우신, 살아 계신 하나님의 살아 계신 아들이십니다. ■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후기 선지자들의 증언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76:22)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간증했다. 이와 동일한 확신으로,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된 모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후임 회장들은 구주의 실재성과 신성, 속죄와 부활에 대해 간증했다.

고든 비 힝클리 회장



“저는 제가 이 교회의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저의 사명이자 주된 임무이며

가장 큰 영예는 그분의 살아 계신 실재성에 대해 엄숙한 간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마음에 선한 영향을 주시고, 영생의 길을 가르치시며,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희생물로 자신을 내주시기 위해 이 불행과 고투와 고통의 세상에 친히 몸을 낮추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고, 영원히 다스리실 것입니다.’(헨델의 메시아) …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시고 아버지의 우편에서 계시다는 것을 엄숙히 간증드립니다.”¹

하워드 더블류 헌터 회장(1907~1995)



“저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은 확신을 가진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에 … 감사드립니다.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의 이야기는 전설이 아니며,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마리아로부터 필멸의 몸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사람들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분은 오늘날에도 살아 계십니다. 그분은 개별적인 인격체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십니다.”²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1899~1994)



“때때로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합니다. ‘물론들은 기독교인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원으로 바라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대로 생활하려 노력하며, 그분께서 이 지상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실 때를 고대합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백성들에게 물문경의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사람의 자녀들에게 구원이 이를 수 있는 다른



아무 이름이나 다른 어떠한 길이나 방법도 주어지지 아니하리니, 다만 전능하신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만 구원이 올 수 있느니라.’ (모사이야서 3:17)”³

스펜서 더블류 킴볼 회장(1895~1985)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한 위치에 놓는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분 또한 하나님이며,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아무리 많이 이야기한다 해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목수,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일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의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주,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

“저의 간증을 덧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친구, 저의 구주, 저의 주님, 저의 하나님이십니다.”⁴

해롤드 비 리 회장(1899~1973)



“영적으로 탐구하던 긴 밤을 지나 그 뒤로 영적인 준비를 위해 많은 날들을 보낸 후, 저는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를 가지고

감히 의심할 수 없는 확신으로 간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사셨고, 돌아가셨으며, 부활하셨고, 오늘날 하늘에 계셔서 그의 교리를 전파하시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딴 이 교회의 일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을 겸손하게 전하며 저의 증언을 여러분께 남깁니다.”⁵

조셉 필딩 스미스 회장(1876~1972)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이룩하신 무한하며 영원한 속죄로 인해 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가 타락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초래된 영육의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의 선하심과 은혜를 통해 모든 인간은 무덤으로부터 나와, 죽어야 하는 몸으로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분께서 살아 계시고, 천상에서 그리고 지상에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분의 목적이 승리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 같이, ‘무릇 주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교리와 성약 76:1)”⁶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1873~1970)



“배신이 일어난 그 특별한 밤에, 만찬이 끝나고 다른 사도들과 주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던 도마가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4:5~6)라는 신성한 대답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위안의 근원이시며, 우리 삶의 영감이 되시며, 구원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알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영혼 불멸의 진실성을 알고 싶다면, 구주의 부활에서 그 실제적인 증거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 “... 그분은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 중

유일하게 완벽한 존재입니다. 고귀함의 가장 큰 모범이시며, 신의 속성을 가지셨고, 온전한 사랑을 구현하셨으며, 우리의 구속주요 구주이시며, 영원하신 아버지의 흠 없는 아들이자, 빛이요, 생명이요, 길이입니다.”⁷

조지 앨버트 스미스 회장(1870~1951)



“구주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죽음과 무덤을 이기셨으며 그분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광스러운 부활의 희망을 주십니다.”⁸

“우리가 주님의 신성한 사명을 믿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후기 성도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명을 잘 이해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철저히 믿으며, 그분이 현재 하나님의 우편에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없다는 것을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⁹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1856~1945)



“전 세계의 교회 회원들, 그리고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 갈릴리 사람은 단순히 훌륭한

스승이 아니며, 단순히 누구도 필적할 수 없는 지도자가 아니라, 평강의 왕이시며,

구원의 근원이시며, 여기 지금 살아 계시는, 문자 그대로 그리고 진실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 돌아가셔야 하는 신성한 사명을 지니고 세상에 오신 세상의 구속주요 인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육신을 입은 독생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시며, 우리는 그분을 경배합니다.”¹⁰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1838~1918)



“하나님의 성령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귀나 눈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 영혼에, 저의 살아 있고 영원한 부분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제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저는 저의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또한 저는 제가 그분을 이 지상에서 뵈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있는 그대로의 그분의 모습을 뵈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이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분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제 온 영을 이 간증으로 채워 주셨습니다.”¹¹

로렌조 스노우 회장(1814~1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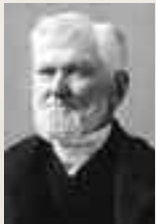


“하늘에 사셨고, 세상이 있기 전부터 그 곳을 다스리셨으며, 지구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시려 절정의

시기에 오셨던 분이 이 시대에 인간에게 나타나셨습니다.”¹²

“우리는 온 세상에 신성한 계시를 통해, 즉 성신의 현시를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무덤에서 일어나신 후 고대의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처럼 친히 조셉 스미스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서, 인류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진리를 그에게 알려 주셨다는 것을 간증합니다.”¹³

월포드 우드럽 회장(1807~1898)



“지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명은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었습니다. ... 그분은 처음부터 모든

것에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하셨고, 자신에게 주어진 쓴 잔을 마셨습니다. 이로서 빛과, 영광과, 영예와, 불멸과, 영생을 가져오셨으며, 믿음이나 소망보다 위대한 그 자비로, 하나님의 어린양은 인간이 스스로 이를 수 없는 일을 인간을 위해 행하셨습니다. ...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고 인간에게 영생을 가져다줄 권능을 가진 이는 아버지의 명령 하에 행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¹⁴

존 테일러 회장(1808~1887)



“참으로 즐거움의 기름 부음을 받아 누구보다 뛰어나게 되신 그분은 땅과 지옥이 합쳐진 인간과 악마의 권능과 싸워 이기셨으며, 신회의

그 월등한 권능으로, 죽음과 지옥과 무덤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하신 아버지, 메시아, 평강의 왕, 구속주, 세상의 구주로 승리하여 일어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과 인간의 아들로서 그에게 하라고 명하신 속죄와 관련된 일을 완수하셨습니다.”¹⁵

브리검 영 회장(1801~1877)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이심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하여 그분의 약속과

그분에 대한 지식과 이 세상이 줄 수도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세상과 그에 부속된 모든 것을 구속하신 구주께서는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 그분은 모든 인간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으며,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 진 빛을 값으셨습니다.”¹⁶

선지자 조셉 스미스(1805~1844)



“이것이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니, 여러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우리에게 증거한 것이라— “곧 예수는 세상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박히시려고, 그리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리고 세상을 성결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모든 불의한 것에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시려고 세상에 들어오셨나니,

“이는 아버지께서 그의 권능에 맡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지으신 모든 자가 그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교리와 성약 76:40~42)

주

1. *Teachings of Gordon B. Hinckley* (1997년), 285~286쪽.
2. *The Teachings of Howard W. Hunter*, 클라이트 제이 윌리엄스 편 (1997년), 4쪽.
3. *The Teachings of Ezra Taft Benson* (1988년), 10쪽.
4. *The Teachings of Spencer W. Kimball*, 에드워드 엘 김볼 편 (1982년), 7쪽; 또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펜서 더블류 김볼* (2006년), 23, 25쪽 참조.
5. *The Teachings of Harold B. Lee*, 클라이트 제이 윌리엄스 편 (1996년), 637쪽.
6. “내가 알기에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나”, *성도의 벗*, 1972년 5월호, 1쪽.
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 (2003년), 3~4, 5쪽.
8. “Testimony of Elder George Albert Smith”, *Liahona: The Elders' Journal*, 1915년 2월 2일자, 502쪽.
9. “Divine Calling of Prophet Joseph Smith Reviewed in Connection with Mission of Redeemer of World”, *Deseret News*, 1924년 12월 27일자, 섹션 3, 6쪽.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허버 제이 그랜트* (2002년), 223쪽.
1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년), 7쪽.
12. *Journal History*, 1884년 4월 5일, 9쪽.
13. *Deseret News*, 1877년 1월 31일자, 834쪽.
1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월포드 우드럽* (2004년), 69~70, 74쪽.
1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2001년), 43~44쪽.
16. *브리검 영 설교집, 선집: 존 에이 윗소*(1941년), 26쪽.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대리

빌 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열두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임 사도인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15~16)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라고 간증했습니다.(베드로전서 1:20) 그분께서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계셨고], 장자[이십니다.]”(교리와 성약 93:21)

아버지의 계획, 즉 구원과 행복의 계획(앨마서 34:9 참조)이 발표되었을 때(앨마서 42:5, 8 참조), 누군가는 그 계획을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과 자비를 주기 위해 속죄를 해야 했습니다.(앨마서 34:16; 39:18; 42:15 참조) 아버지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꼬?” 예수로 알려지실 분께서 자발적이고 기꺼운 마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아브라함서 3:27) “아버지여,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영광이 영원토록 당신의 것이 되기를 원하나이다.”(모세서 4:2)

그 준비 과정에서, 세상이 창조되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모세서 1:33, 또한 에베소서 3:9,

히라맨서 14:12, 모세서 2:1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칭호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그가 ...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누가복음 1:31~32)

그분은 구약의 선지자들에 의해 여호와로 알려졌습니다.(아브라함서 1:16, 출애굽기 6:3 참조) 선지자들은 그분의 오심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린양 곧 참으로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보라!”(니파이전서 11:21, 또한 요한복음 1:14 참조) 그분의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 그가 ...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누가복음 1:31~32)

그의 여러 칭호와 이름들이 그분의 신성한 사명과 성역을 설명합니다. 그분은 친히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니라”(제3니파이 9:18) “내가 ...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가 됨이니”(교리와 성약 29:5, 또한 교리와 성약 110:14 참조) “나는 선한 목자라”(요한복음 10:11) “나는 메시아, 시온의 왕, ... 하늘의 반석이니”(모세서 7:53)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거너] ... 목마르지 아니하니라.”(요한복음 6:5)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요한복음 15:1)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한복음 11:25) “나는 ... 광명한 새벽



그분은 우리의 주님,
구속주, 메시아, 시온의 왕,
하늘의 반석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상, 베틀 토발렌 그림; 지구 사진
© CORBIS IMAGES



별이라”(요한계시록 22:16), “너희 구속주요 위대한 자존자인 예수 그리스도라”(교리와 성약 29:1)

그분은 증보자이시며(디모데전서 2:5 참조), 구주이시며(누가복음 2:11 참조), 구속주이시며(교리와 성약 18:47 참조), 교회의 머리이시며(에베소서 5:23 참조), 교회의 모퉁잇돌이십니다.(에베소서 2:20 참조) 마지막 날에,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 심판하실 것입니다.”(로마서 2:16, 또한 몰몬서 3:20 참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 “그러한즉 구속은 거룩하신 메시아 안에서 거룩하신 메시아를 통하여 임하나니, 이는 그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시기 때문입니다.”(니파이후서 2:6)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자주 다음과 같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당신네 종교의 기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 일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¹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주님께서 체포되었을 때, 그분은 겿세마네 동산에서 나오셨습니다. 배반의 순간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종인 말고를 향해 칼을 빼어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열두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마태복음 26:52~53)

모든 비웃음, 학대, 매질, 그리고 십자가에서 최후의 고문이 가해지는 동안, 주님께서 유순함과 침묵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교리의 본질을 나타내는 극적인 한 순간에는 예외셨습니다. 그 순간은 재판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두려움에 휩싸인 빌라도가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요한복음 19:10)

인간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의 그 조용한 위엄을 단지 상상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요한복음 19:11) 그 뒤에 일어난 일은 빌라도가 그것을 행할 권한을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주께서 그것을 받아들일 의지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요한복음 10:17~18)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이나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비이기적인 영웅적 행동으로 그들의 목숨을 기꺼이 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감내하신 일을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모든 인간의 범법과 모든 인간의 죄의 짐을 지셨습니다. 그것은 조화와 균형의 속죄였습니다. 그분의 자발적인 행동을 통해 자비와 공의가 화해할 수 있었으며, 영원한 율법이 지속될 수 있었고, 필멸의 인간이 구원 받는 데 반드시 필요한 중재가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를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사악함과 부패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기로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미 있었고 또 앞으로 벌어질 모든 만행, 부도덕, 타락, 부패, 중독, 살인, 고문, 폭력에 대한 대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은 육체에 제한되어 있지도, 필멸의 고통에 종속되어 있지도 않은 사탄의 가공할 권능 앞에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그것은 겿세마네에서였습니다.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필멸의 존재도 악이 그 고결한 분의 빛 앞에서 쫓겨나 부끄러움으로 숨었던 순간을 보지 못했습니다. 어떠한 악도 그 빛을 꺼뜨릴 수 없었습니다. 그 일이 성취되었을 때, 우리의 젓값이 치러졌습니다. 죽음과 지옥 모두, 회개하는 모든 이들 앞에서는 힘을 잃었습니다. 마침내 인간은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이 지상에 살았던 모든 인간은 그 빛을 따르고 구속 받도록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무한한 희생에 의해, “그리스도의 [이] 속죄를 통하여, 온 인류가 복음의 법과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신앙개조 제3조)

경전에 나오는 “속죄”

영어 단어 *atonement*(속죄)는 사실 *at-one-ment*의 세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가 되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다, 화해하다, 불신을 없애고 일치시키다, 젓값을 치르다라는 의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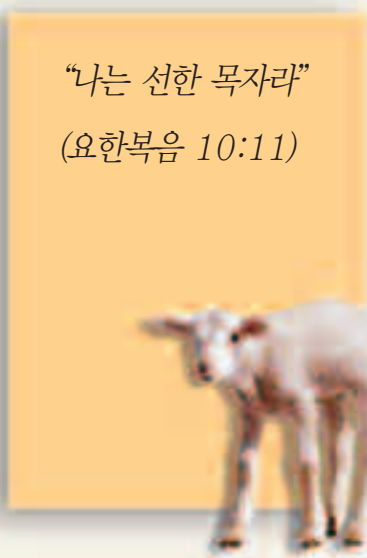
여러분은 영문 신약에 *atonement*(속죄)라는 단어가 단 한 번 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딱 한 번 나옵니다! 로마인들에게 보내는 베드로의 서한을 인용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8, 10~11; 강조 첨가)

영문 신약에 *atonement*(속죄-역자 주: 한글 신약전서에는 화목으로 번역되어 있음)란 단어는 이곳에서 단 한 번 나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11)

모든 단어들 중 이 *atonement*, 즉 속죄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모세의 율법과 관련하여 무척 많이 쓰였던 단어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단 한 번 쓰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에 대해 알고 있는 설명은 한 가지입니다. 물론경을 살펴보면, 니파이는 성경이 한때 “열두 사도가 증거한 … 주의 충만한 복음[을 믿고] 있었다”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이 말씀이]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손에 의해 유대인들부터 이방인들에게 나아가고 나서, 너는 저 크고 가증한 교회가 형성됨을 보나니, 이는 다른 모든 교회보다 가장 가증한 것이니라. 이는 보라 그들이 어린양의 복음에서 명백하고 극히 귀한 많은 부분들을 제하여 버렸음이고, 주의 많은 성약을 또한 제하여 버렸음이라.”(니파이전서 13:24, 26)

야곱은 크고 가증한 교회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그런즉, 시온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매인 자나 자유로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멸망하리니, 이는 그들이 온 땅의 창녀인 자들임이라. 이는 나를 위하지 않는 자들은 나를 대적하는 자들임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느니라.”(니파이후서 10:16)

니파이는 또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에서 제하여진 많은 명백하고 귀한 것들로 인해, … 실로 심히 많은 자들이 실족하여 넘어지며, 참으로 그 결과 사탄이 그들 위에 큰 권능을 가짐이라.”(니파이전서 13:29) 그리고 그는 귀한 것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니파이전서 13:34~35 참조)

그리고 그것들은 회복되었습니다. 물론경에는, *atone*(속죄하다)이라는 낱말이 39번 나옵니다. 이 중 앨마서에 나오는 한 구절만 인용하겠습니다. “이에 이제 속죄가 행하여지지 않고서는 자비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지라, 그러므로 자비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세상의 죄를 위하여 속죄하시나니, 이는 하나님이 완전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자,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자 함이라.(앨마서 42:15, 강조 첨가)

신약에는 단 한 번이지만 물론경에는 39번 등장합니다. 물론경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이라는 것을

이보다 더 잘 증거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atone*, *atoneth*(속죄하다), *atone-ment*(속죄)라는 단어는 교리와 성약에 다섯 번 나오고 값진 진주에는 두 번 나옵니다. 47개의 참조 성구가 그 중요성을 반증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기타 수백 개의 성구들이 속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선택의지

속죄의 값은 주님에 의해 강요당하지 않고 치러졌습니다. 선택의지가 가장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계획에 따르면, 선택의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태초부터,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역시 존중되었습니다.

“주가 에녹에게 이르되, 이 네 형제들을 보라, 그들은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니, 내가 그들을 창조하던 날에 그들에게 그들의 지식을 주었고, 에덴 동산에서 내가 사람에게 그의 선택의지를 주었느니라.”(모세서 7:32)

에덴 동산에서 그 외 어떤 일이 일어났든, 죽음을 각오한 그 시험의 순간에, 아담은 선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신 후, 선약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네게 주어졌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그것을 금한 것을 기억하라. 네가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임이니라”(모세서 3:17)

인간에게 강제로 필멸성을 갖게 하는 것에는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계획의 본질적인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 각자에게 필멸의 육신과 시험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담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 따라 선택을 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것은 사람이 존재하게 하려 함이요, 사람이 존재함은 기쁨을 갖기 위함이니라.”(니파이후서 2:25)

아담과 이브는 그들이 명함 받은 대로 변성하여 땅에 충만하기 위해 과감히 나섰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들의 육신의 창조는, 별도의 창조로서, 구원의 계획에 매우 중요했습니다. 뒤따른 그들의 타락은 필멸의 상태를 가져오고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

(교리와 성약 110:4)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속죄의 필요성

니파이는 “무한한 속죄”가 없으면 우리의 육신과 영에 어떤 일이 생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필연 ... [악마]같이 되었으리라” (니파이후서 9:7~10 참조)

저는 ‘절대적으로’라는 단어를 거의 쓰지 않습니다. 그 말이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단어를 두 번 사용하고자 합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속죄는 부활이 진행되어 필멸의 사망을 극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속죄는 인간이 스스로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고 둘째 사망, 즉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의

분리를 뜻하는 영적 사망을 극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경전은 우리에게 부정하는 것은 무엇이라도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여덟 번이나 말해 주고 있습니다. (니파이전서 10:21, 15:34, 앨마서 7:21, 11:37, 40:26, 힐라맨서 8:25, 제3니파이 27:19, 모세서 6:57 참조)

“그러할지라도 네가 스스로 택할 수 있나니, 이는 그 일이 네게 주어졌음임이니라.”(모세서 3:17)라는 경전의 말씀은 아담과 이브와 그 후손들에게 필멸성이 지닌 모든 위험 요소를 알려 주었습니다. 필멸의 상태에서 인간은 선택할 자유를 갖게 되며, 각각의 선택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아담의 선택은 불순종의 대가로 사망을 요구하는 공의의 법을 발동시켰습니다.

그러나 재판 중에 주께서 하신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요한복음 19:11)라는 말씀은 자비 또한 똑같은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빛을 갇고 인간을 자유케 하기 위해 구속주가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엘마의 아들 코리엔톤은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르고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오한 교훈을 통해, 엘마는 그의 아들과 우리들에게 구속의 계획을 가르쳤습니다. 엘마는 속죄에 대해 말하면서 “이제 영원한 형벌이 없는 사람들에게 회개가 임할 수 없었나니” (엘마서 42:16)라고 전했습니다.

형벌이 회개가 요구하는 값이라면, 그 값은 무척 싼 것입니다. 회개의 결과는, 그것이 고통스러운 결과일지라도, 우리를 보호합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불에 데었을 때 아파서 우는 것과 같은 아주 간단한 이치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고통이 없다면, 그 아이는 불에 타 죽을 것입니다.

회개의 축복

저는 회개 없는 세상에서는 화평도, 행복이나 안전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을 가까이 고백합니다. 만약 제가 저지른 잘못을 지울 길이 없다면 저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고통은 제가 감당해 낼 수 있는 것보다 더 클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제게는 그렇습니다.

속죄는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회개하기만 한다면 항상, 범법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회개는 면책 조항입니다. 회개는 감옥 문을 안에서 열수 있게 하는 열쇠입니다. 우리는 그 열쇠를 우리의 손에 쥐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할 선택의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유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선택의지는 얼마나 귀중한 것입니까.

루시퍼는 죄와 그 결과에 대해 우리를 속이며 교묘하게 우리의 선택을 조종하려 합니다. 그와 그의 천사들은 우리를 유혹하여 합당하지 못하게, 즉, 사악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 자신의 동의 없이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영원토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의 모든 권능을 동원해도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지가 속죄 없이 인간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파괴를 부르는 치명적인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형상대로 창조됨

우리는 창세기, 모세서, 아브라함서, 물몬경, 그리고 엔다우먼트를 통해 인간의 필멸의 육신은 별도의 창조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배웁니다. 창조가 다른 형태로 이루어졌다면, 타락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그저 단순한 동물이라면, 책임이 따르지 않는 자유가 더 논리적일 것입니다.

학자들 가운데, 인간의 기원을 찾기 위해 인간보다 낮은 차원의 동물들과 돌들을 살펴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들은 그들 안에 있는 영혼을 찾기 위해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물을 수천, 수백만 단위의 시간으로 측정하는 훈련을 하고, 인간이라고 불리는 동물은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그렇게 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선택의지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선택의지는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 이상의 더 높은 것을 바라보고,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숨씨를 보며, 사물을 시대, 영겁, 경륜, 영원으로 측정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들을 신앙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창세 이전”부터 계획되었습니다.(교리와 성약 38:1, 또한 교리와 성약 49:17, 76:13, 39, 93:7, 아브라함서 3:22~25 참조) 창조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이르는 사건들은 우연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계획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압니다! 창조와 타락이 없었다면, 속죄도 필요 없었을 것이고 우리를 중재할 구속주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도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속죄의 상징

구주께서는 겻세마네와 골고다에서 피 흘리셨습니다. 이보다 수세기 전에, 상징과 앞으로 있을 일의 예표로서 유월절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지켜져야 할 의식이었습니다.(출애굽기 12장 참조)

죽음의 역병이 애굽에 선포되었을 때, 각 이스라엘 가정은 흙 없는 첫 새끼인 숫양을 취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 유월절 양은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죽어야 했으며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야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죽음의 천사가 양의 피가 칠해져 있는 집을 지나칠 것이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양의 피에 의해 구원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 후, 희생의 법은 더 이상 피흘림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히브리인들에게 가르친 것같이 “단번에 ...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히브리서 10:10, 12)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희생은 그때 이후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곧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성찬을 통해 영원히 기념될 것입니다. 성찬을 취함으로써 우리는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어린양의 살과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의 피를 기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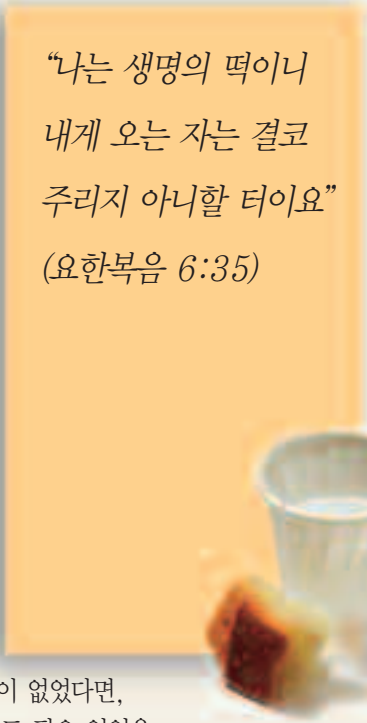
이 상징이 지혜의 말씀에 다시 언급된 것은 간과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대의 성도들이 건강과 지식의 위대한 보화를 얻을 것이라는 약속 이외에도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약속을 더 주셨습니다. “나 주는 그들에게 한 가지 약속을 주노니, 멸하는 천사가 이스라엘의 자녀에게 한 것같이 그들을 지나칠 것이요, 그들을 죽이지 아니하리라.”(교리와 성약 89:21)

저는 속죄에 대한 저의 느낌에 대해 태연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속죄에 대해 저는 마음속 깊이 감사와 은혜를 느낍니다. 저의 영혼은 이를 이루신 그분, 곧 제가 증거하는 이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를 따라갑니다. 그분에 대한 저의 간증을 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구속주,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피로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저는 우리의 아버지와 그분의 이들을 경배하기 위해 무릎 꿇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게 선택의지가 있으므로, 저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습니다!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49쪽.



“나는 길이에요”

구주께서는 “나는 …”라고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교회 잡지

때 때로 경전과 관련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경험들은, 읽는 동안에 갑자기 무엇인가 분명한 패턴이 보일 때 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에 예수께서 “나는”이란 단어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셨는지 주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하시는지 가르치시기 위해 대개 비유로써 이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비유들 중 몇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구주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요한복음 6:35, 51)

유월절 만찬은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을 기념하면서 무교병을 먹는 날입니다. 절기가 가까웠을 때,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기적을 본 많은 사람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음식을 주었기 때문에 그분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하도록 있는”(요한복음 6:27)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나에 대해 가르치시며, 만나의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고 선언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을 통해 보내신 영적 양식과 그분이 가져온 영생의 약속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은 성찬의 일부로서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매주 성찬식에서 빵을 취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분의 희생, 부활, 영의 동반을 통한 지속적인 영적 양식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예수님은 초막절에 스스로를 세상의 빛이라 부르셨습니다. 이 절기 동안 매일 밤 성전의 불빛이 세상에 보내진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기 위해 밝게 비쳤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요한복음 1:9)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은 그리스도의 빛이 “너희 눈을 밝혀주는 이를 통하여 오나니, 이는 너희 이해력을 일으키는 바로 그 빛”이며, 또한 그 빛은 “만물에게 생명을 주며, 만물을 다스리는 율법”(교리와 성약 88:11, 13)이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밝아집니다.

그분의 빛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선과 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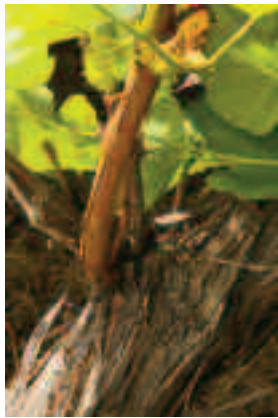


차이를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시고 영생에 이르는 길을 보여 주십니다.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5)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원의 주 포도나무에 비유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는 나무 전체가 땅에 뿌리 내리는 것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작은 포도나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여 가지를 치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의 닻이시며



영적 양식과 성장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의롭게 살고 선행을 하는 데 필요한 힘을 얻습니다. 그분은 또한 교회의 기초이시며 복음을 전파하고 세상에 확산시키는 교회의 권세의 근원이십니다.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애느니라.”(요한복음 10:14)

목자의 주된 의무는 양들을 먹이와 물가로 인도하고 그들을 다시 우리로 안전하게 데려오는 것입니다. 목자는 야생 동물과 도둑과 같은 위협으로부터 양을 보호합니다. 그는 자신의 양떼를 알기 때문에 한 마리만 잃어버려도 알아차리고 곧 그 양을 찾으러 나섭니다. 그의 양들은 그에게 순종하며 그를 온전히 신뢰합니다.

선한 목자인 예수님은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우리를 찾아 나서십니다. 우리가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법을 배운다면, 그분께서는

우리를 구원과 영생의 안전한 목장으로 인도하시어, 사망과 죄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내가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요한복음 8:58)

간단히 “내가 있느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은 모든 것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그분은 자신이 세상의 창조주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며, 그의 이름이 문자 그대로 “스스로 있는 자”를 의미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출애굽기 3:14)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주이십니다. 그분의 신분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로 인해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구주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 질문을 하시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15~16 참조) 여기 이와 같은 질문에 답한 전 세계의 10대들과 청년들의 대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가족과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 공부를 도와 주셨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몇 번 받았으며, 그것들이 그분으로부터 온 축복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브라이언 엔, 13세, 온두라스

저는 구주의 고통과 죽음과 속죄를 통해 우리가 부활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신앙과 회개를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조안 오, 19세, 필리핀

오래 전에 한 남자가 이 지상에 살았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은 저의 삶을 포함하여 수백만 명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속죄의 희생은 매일 저의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그분의 상처로 인해 우리들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기에, 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며 아직 그의 영원하신 사랑을 느끼지 못한 세상 사람들에게 그의 복음을 전파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제 영혼의 구주요 구속주이십니다.

크리스티안 엠, 24세, 크로아티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다른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셨습니다. 세계는, 아론 신권을



받았을 때가 매우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이 주님께서 제게 원하시는 일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저를 계속해서 인도하시고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림하이 지, 17세, 멕시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제 인생은 너무나 힘겹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저는 감독님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감독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제가 기대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제게 기도하고 경전을 읽음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 의지하고, 구주께서 저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신뢰하면 제 짐이 가벼워짐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

반이 지난 지금, 저는 우리의 구주이신 그분과 우리를 위해 그분이 하신 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지속적인 평화가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휘트니 더블류, 19세, 미국 애리조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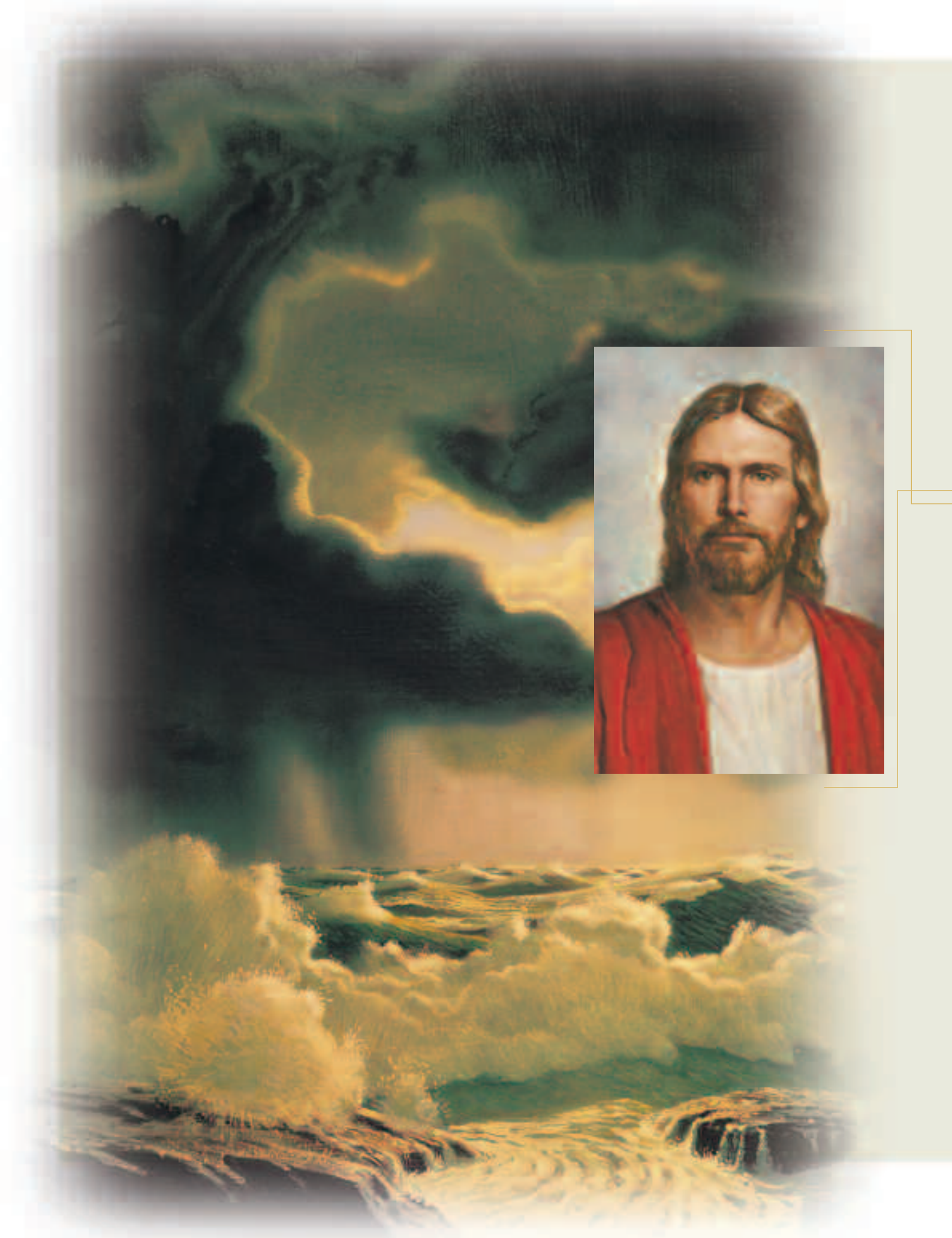
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심을 압니다. 그분은 저를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 그분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의 친구이십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통해 저는 그분과 같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그분은 공의롭고, 친절하며, 완전하고, 자비로우십니다. 그분은 깃세마네에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 저의 구주, 저의 반석, 저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클라우디아 알, 25세, 멕시코

교회에서 자라고 초등학교에 참석하면서,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웠습니다. 저의 간증은 그 이후로 점점 강해졌습니다. 지금 저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으며, 매일 복음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할 기회들을 사랑합니다.

구주와 그분이 저를 위해 하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저는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운 것들을 내면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도록 도울 수 있어서 좋습니다. 이 간증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입니다.

수잔나 브이, 21세, 통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러셀 엠 넬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의사가 되기 위한 저의 긴 여정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 수 년간 병원에서의 임상, 연구, 전문의 과정, 그리고 인증 시험들이 뒤따랐습니다. 그 후로도 오랜 세월을 가르치고, 봉사하고, 신생 개발 분야인 개심술(역자 주: 심장을 절개하여 내부를 직접 육안으로 보면서 조작하는 수술)의 과제들을 해결하는 동안, 저는 인체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깊은 경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놀라운 인간의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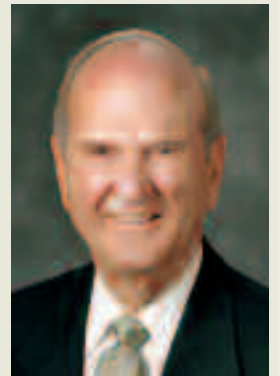
인체의 기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몸은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각각 하나씩 받은 두 개의 생식 세포의 결합으로 시작됩니다. 이 두 세포의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작은 공간에는 새 생명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각 부모로부터 온 스물세 개의 염색체들은 하나의 새로운 세포로 결합합니다. 이 염색체 안에 태아의 신체적 특성들을 결정 짓는 수천 개의 유전자들이 들어 있습니다. 두 세포가 결합한 지 약 22일 후면 조그마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26일째가 되면 혈액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세포들은 증식하고 분열합니다. 일부는 보는 눈이 되고,

일부는 듣는 귀가 되며, 일부는 손가락이 되어 우리 주변의 많은 신비로운 것들을 지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각 기관은 놀라운 창조물입니다. 눈에는 스스로 초점을 맞추는 렌즈가 있습니다. 신경과 근육은 두 눈이 단일 3차원 영상을 만들어내도록 합니다. 귀는 음파를 알아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변형시켜 뇌에서 인지하게 해 줍니다.

심장에는 혈류의 방향을 조절하는 네 개의 섬세한 판막이 있습니다. 이들은 열렸다 닫히기를 하루에 십만 번, 1년에 3천 6백만 번 이상 반복합니다. 질병으로 변형되지 않는 한, 이들은 거의 무한정 이러한 압력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 중에 손상되지 않고 그렇게 오래, 그렇게 자주 수축 작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날마다 성인의 심장이 펌프질하는 혈액의 양은 2천 갤런(7,570리터)의 탱크를 채울 만한 분량입니다. 심장의 위쪽 부위에서 전기를 발생시켜 특별한 통로들을 따라 아래쪽으로 전달함으로써 수많은 근섬유들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인체의 대체 조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쌍으로 존재하는 각 기관들은 서로를 즉각적으로 대체해 줄 수 있습니다. 뇌, 심장, 간과 같은 단일



주님을 믿는 역동적인 신앙은 온전한 개종과 그분의 성스러운 사업에 대한 온전한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그분의 계명대로 생활함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길이요 생명의 떡입니다. 그분은 인류의 유익과 생존을 위한 모든 창조물에 아름다움을 더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위대하시며, 독생자이시고 영의 자녀들 중 장자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아버지께서는 모든 인류에 대한 크신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일생 동안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특히 주님의 가장 위대한 업적인 신성한 속죄를 통해 참으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분의 계명대로 생활함으로써 그분께 저의 사랑을 표현하고자 노력합니다.

현재 저와 제 아내는 그분을 위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며 사람들에게 그분께 나아가서 그분을 그들의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권유하는 것은 놀라우리만큼 기쁜 일입니다.

피오리노 베라르도, 아르헨티나

기관들은 두 개의 혈관을 통해 양분을 공급 받습니다. 따라서 한쪽 통로의 혈류가 막히더라도 기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자기방어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손상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체는 고통을 감지합니다. 인체는 감염에 반응하여 항체를 만들어냅니다. 항체는 당면한 문제와 싸울 뿐 아니라 향후의 감염에 대항할 힘을 강화시킵니다.

인체의 자연 치유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러진 뼈는 회복되어 다시 강해집니다. 피부의 상처는 자연 치유됩니다. 순환 과정에서 생기는 출혈은 자연스럽게 지혈됩니다. 인체는 수명이 다한 세포를 새로운 세포로 대체합니다.

인체는 필수 구성 성분들을 스스로 관리하며 중요한 요소와 성분들의 수준을 끊임없이 조절합니다. 또한 주변 환경의 온도 변화가 심해도 체온은 좁은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조절됩니다.

오랜 세월의 경험을 통해 저는 치유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축복에 관련된 모든 법칙이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¹ 인체의 구조와 기능은 법칙의 지배를 받습니다. 경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왕국에는 저마다 한 율법이 주어지고 모든 율법에는 저마다 또한 어떠한 범위와 조건이 있느니라.”²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 또한, 그것이 조수의 예측 가능성이든, 달의 위상 변화이든, 또는 하늘의 별들의 위치이든 간에, 비슷한 법칙과 질서의 존재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법칙과 질서는 모든

창조물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사람이 발견하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 법칙의 결과 또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질서는 전능한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합니다.³

반면 신앙이라는 것은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우주의 법칙과 질서의 상관 관계는 경전에 밝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에게 율법을 주었고, 이로써 만물은 그들의 때와 그들의 계절에 따라 운행하느니라.

“또 그들의 진로는 일정하니, 땅과 모든 행성을 포함한 여러

신앙이란 무엇인가?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신앙이 있으면 너희는 보이지 않는 참된 것들을 바라느니라.”(엘마서 32:21) 신앙은 행동과 힘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가치 있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때 우리는 신앙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나타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우리가 그분의 온전한 모범을 따르도록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14:12 참조)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고, 계명에 순종하며, 죄를 회개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야고보서 2:18; 니파이전서 3:7; 엘마서 34:17

참조) 주님을 믿는 신앙을 갖는 것은 그분께 온전히 의지하는 것, 즉 그분의 무한한 권능과 예지와 사랑을 신뢰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에는 그분의 가르침을 믿는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그분은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신앙이 구원으로 이어지려면, 그 신앙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야 합니다.(사도행전 4:10~12, 모사이사서 3:17 참조) (1)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확신과 (2) 그분의 성품에 대한 올바른 이해, (3)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 살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지식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게 됩니다.

신앙에 충실함 (2004년), “신앙”, 106~108쪽.



하늘과 땅의 진로가 그러하니라.

“보라, 이 모든 것은 다 왕국이니, 이 중 어느 것이든지 또는 가장 작은 것일지라도 본 자는 누구나 그 위엄과 권능으로 나아가시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⁴

창조의 신성함

경전은 하늘과 땅과 지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선언합니다.⁵ 경전은 또한 창조에 있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협력 관계를 더 잘 알도록 도와 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⁶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⁷ 입니다. 아브라함서는 “하나님들께서 내려가 자기들의 형상대로 사람을 조직하시되, 하나님들의 형상대로 그들이 그를 지으시고,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니라.”⁸라고 가르칩니다.

경전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과 모든 인간에 대해 어떻게 느끼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⁹

요한복음은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니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¹⁰
이 경전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¹¹이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우주를 관할하시며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사실을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권능의 말씀으로 내가 그것들[지구와 그 위의 개체들]을 창조하였나니, 말씀은 나의 독생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자니라

“그리고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또한 나는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 그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¹²

다른 많은 성구들 역시 아버지의 인도 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자가 되셨음을 확인해 줍니다.¹³ 가장 주목할 만한 말씀 중 하나는 그분 자신의 간증입니다. “보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내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였느니라. 나는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나니,”¹⁴

그 것이 조수의 예측 가능성이든, 달의 위상 변화이든, 또는 하늘의 별들의 위치이든 간에, 법칙과 질서는 모든 창조물의 기초를 형성합니다. 그러한 질서는 전능한 창조자가 계심을 증거합니다.

영양을 고치시는 예수 왕, 케리코의 블로흐, 엔리크 할라르도의 프라데라스버그 국립 역사박물관 제공. 영인권 사진 © GETTY IMAGES; 왼쪽 사진 © CORBIS

주

님을 믿는

역동적인

신앙은 개종,

마음의 크나큰 변화,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으로의 사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역동성

그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신앙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인 간증의 토대입니다. 복음의 첫째 되는 원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¹⁵ 바울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¹⁶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를 구하노라”라고 말했습니다.¹⁷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간청했습니다.¹⁸

물론경에서 우리는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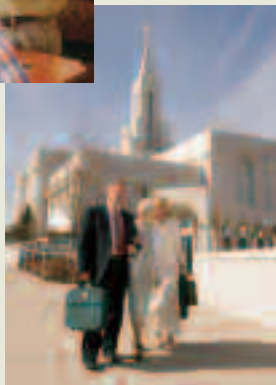
안에서 살리심을 받았고 ... 또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¹⁹

그분을 믿는 신앙을 통해 오는 축복 또한



물몬경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소망의 완전한 밝은 빛과 하나님과 만인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굳건함을 가지고 힘써 앞으로 나아가야만 하느니라. 그런즉 만일

너희가 힘써 앞으로 나아가되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며 끝까지 견딜진대, 보라, 이같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 하시느니라.”²⁰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입니다.²¹



주님을 믿는 역동적인 신앙은 온전한 개종과 그분의 성스러운 사업에 대한 온전한 결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성약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됩니다. 경전은 이렇게 확인해

줍니다. “이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났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²²

주님을 믿는 역동적인 신앙은 개종, 마음의 크나큰 변화,²³ 세상의 방법으로부터 하나님의 방법에서의 사고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는 사람을 “진정한 의도”²⁴로 회개하게 만듭니다. 엘마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들에게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전파하라. 그들을 가르쳐 스스로 겸손하게 하고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게 하라. 그들을 가르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으로, 악마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하라.”²⁵

물몬경이 존재하는 이유 중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요 영원하신 하나님임을 확신시키기 위함입니다.²⁶ 물몬경을 읽고 그 책이 참된지를 신앙으로 질문하는 사람은 물몬경의 진실성에 대한 간증을 얻습니다.

마음의 크나큰 변화

간호학교를 마친 후 나는 어린이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나는 배우고 경험을 쌓아서 나 자신을 증명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일이 육체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그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나는 부모들조차 자신의 자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하는 것을 보면서 세상이 왜 그리 악한지 이해할 수 없었다. 하나님께서 왜 어린이들의 죽음을 용인하시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다. 병원에서 일 년간 일하고 나자 나의 영혼은 너무나 지쳐버렸다.

그러던 중 나는 우리 가족들이 후기 성도 교회 선교사들과 토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근무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나는 그 토론 시간에 집에 없었다. 곧 여동생과 어머니가 침례를 받았다. 나는 의문점과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떠안은 채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다. 우리 가족은 내가 선교사들과 만나도록 약속을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나는 그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존슨 자매와 마추크 자매가 방문했을 때 나는 그들의 대화에 동참했다. 다음 방문 때 그들은 내게 선교사 토론을 가르쳤고 나는 오랫동안 고민했던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었다. 나는 곧 침례 받고 확인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된 후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의 신앙으로 인해 지지 받는 느낌을 얻었다. 나는 계속해서 기도의 힘을 느꼈으며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온 기분이었다. 교회에 다닌 여섯 해 동안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확신을 얻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나는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나테즈다 쿠스넷소바, 러시아

그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구주이시며, 조셉 스미스는 이 마지막 날에 그분의 계시자요 선지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²⁷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구원과 승영의 필수 요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이생에서 축복을 가져올 뿐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승영에 필수적입니다. 경전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반드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며,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끝까지 견디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줄 아노라.”²⁸ 주님께서는 또한 부모들에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²⁹을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칠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 구주, 구속주³⁰이시며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³¹ 구원자,³² 그리고 구약의 여호와³³이십니다. 그분은 약속된 임마누엘,³⁴ 기쁨 부음 받은 메시아³⁵이시며 우리의 위대한 모범이십니다.³⁶ 언젠가 그분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다스리시기 위해 돌아오실 것입니다.³⁷ 결국 우리는 심판의 날에 각자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³⁸ 저는 그분에 대한 우리의 개인적인 간증이 받아들여 지기를 기도합니다. ■

주

1. 주님께서 바로 그 개념을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친히 정립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음으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1:21)
2. 교리와 성약 88:38.
3. 앨머서 30:44 참조.
4. 교리와 성약 88:42~43, 47.
5. 골로새서 1:16, 모사야서 4:2, 9; 5:15; 앨머서 18:28; 22:10; 모세서 3:5 참조.
6. 창세기 1:1.
7. 창세기 1:27.
8. 아브라함서 4:27.
9. 요한복음 3:16.
10. 요한복음 1:1~3.
11. 그리스어로 *Logos*(“말씀”이라는 뜻)는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다.
12. 모세서 1:32~33, 강조 부분 추가.
13. 에베소서 3:9; 모사야서 3:8~11; 힐라멘서 14:12; 물몬서 9:8~14 참조.
14. 제3니파이 9:15. 주님께서는 또한 “보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늘들과 땅을 창조한 자요, 어둠에 숨기울 수 없는 빛이니라”(교리와 성약 14:9)라고 선언하셨다.
15. 신앙개조 제4조 참조.
16. 히브리서 11:1.
17. 에베소서 3:17~19.
18. 에베소서 4:11~13; 또한 갈라디아서 3:26~29 참조.
19. 니파이후서 25:25~26.
20. 니파이후서 31:20; 또한 이노스서 1:8; 모사야서 3:12 참조.
21. 교리와 성약 14:7.
22. 모사야서 5:7.
23. 앨머서 5:12~14 참조.
24. 니파이후서 31:13; 또한 야곱서 6:5; 모사야서 7:33; 제3니파이 10:6; 12:24; 18:32 참조.
25. 앨머서 37:33; 또한 물몬서 9:37; 모로나이서 7:25~26, 33~34, 38~39 참조.
26. 물몬경 표제지 참조.
27. 물몬경 소개.
28. 교리와 성약 20:29.
29. 교리와 성약 68:25; 또한 모세서 6:57~62 참조.
30. 이사야 49:26; 60:16; 니파이전서 21:26; 니파이후서 6:18 참조.
31. 교리와 성약 29:5; 110:4 참조.
32. 사무엘하 22:2; 교리와 성약 138:23 참조.
33. 교리와 성약 110:3 참조.

어린이의 신앙

나는 당시 여덟 살이던 아들을 데리고 30~40분 걸리는 거리를 걸어 스테이크 대회에 가기로 결심했다. 20분 정도 지나자 나는 더 이상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다. 항상 재잘거리를 좋아하는 나의 아들 엘슨은 학교와 집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실새 없이 이야기하던 중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길을 잃은 것 같아 생각을 해야 하니 잠시 조용히 해달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아들의 신앙을 볼 수 있었다. 아이는 함께 기도하자고 했다. 어른의 지적 능력과 이해력을 가진(그리고 모임 시작 시간이 다가와 조금 조바심이 난) 나는, 아들에게 기도를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하며, 나는 우선 생각을 좀 해야겠다고 대답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우리가 주님께 기대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있는데, 교회로 가는 길을 찾는 것도 그 중 하나야”라고 말했다.

마치 내 생각을 읽기라도 한 듯, 엘슨은 “왜 더 어려운 방법을 고집하시는데요?”라며 나에게 겸손을 가르쳤다. 그런 다음 아이는 조용해졌고, 나는 그가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잠시 후 우리는 교회에 도착했고, 나는 아들의 기도가 응답 받았다는 것을 알았다.

후기 성도로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 되는 축복을 받았다. 아직 어린아이인 아들이 신앙과 기도의 원리를 실천하는 방법을 알았고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사는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회복된 복음의 참됨에 대한 나의 간증은 더욱 커졌다.

엘슨 카를로스 페레이라, 브라질

34. 이사야 7:14 참조.
35. 니파이후서 25:14~19 참조.
36. 요한복음 13:15; 제3니파이 27:21 참조.
37. 요한계시록 17:14; 19:16 참조.
38. 요한계시록 20:12; 니파이전서 15:33; 니파이후서 9:22, 44; 28:23; 앨머서 5:15; 제3니파이 27:14; 물몬서 3:20; 9:8~14 참조.

에밀리오의 신앙

집사인 소년이 감독인 나에게 “병 고침을 받는 신앙을 갖는 것”의 의미를 보여 주었다.

라몬 라미레즈

몇 달 전, 우리 와드의 집사 중 한 명인 에밀리오가 갑자기 심하게 아팠다. 의사들은 소년의 병이 무엇인지 진단을 내리지 못했다.

에밀리오와 그의 어머니는 그가 급격히 쇠약해지고 상태가 악화되자 겁에 질렸다. 어머니는 그를 수차례 병원에 데려갔으나 전혀 호전될 가망이 보이지 않았다.

에밀리오의 어머니는 신권 축복을 받게 하려고 그를 교회로 데려왔다. 감독인 나와 장로 정원회의 한 형제가 그를 축복할 특권을 가졌고, 그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숙면을 취했다.

그러나 며칠 후 나는 증상이 재발하여 에밀리오가 다시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나는 다른 형제와 함께 급히 병원으로 갔고, 병실에 있는 에밀리오를 만났다. 상태가 악화되어 아이가 실망해 있을 것이라 짐작했기 때문에, 나는 곧 이어 일어난 일로 더욱더 가슴이 벅차 올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이야기했고 나는 구주께서 어떤 것이라도 그분의 뜻에 따라 이길 권능이 있으시다고 설명했다. 에밀리오의 대답은 우리들의 마음을 깊이 감동시켰다. “감독님, 이걸 그저 또 하나의 시험일 뿐이에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있고, 그래서 이 일이 곧 끝날 거라고 믿어요.”

우리는 그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한번 그를 축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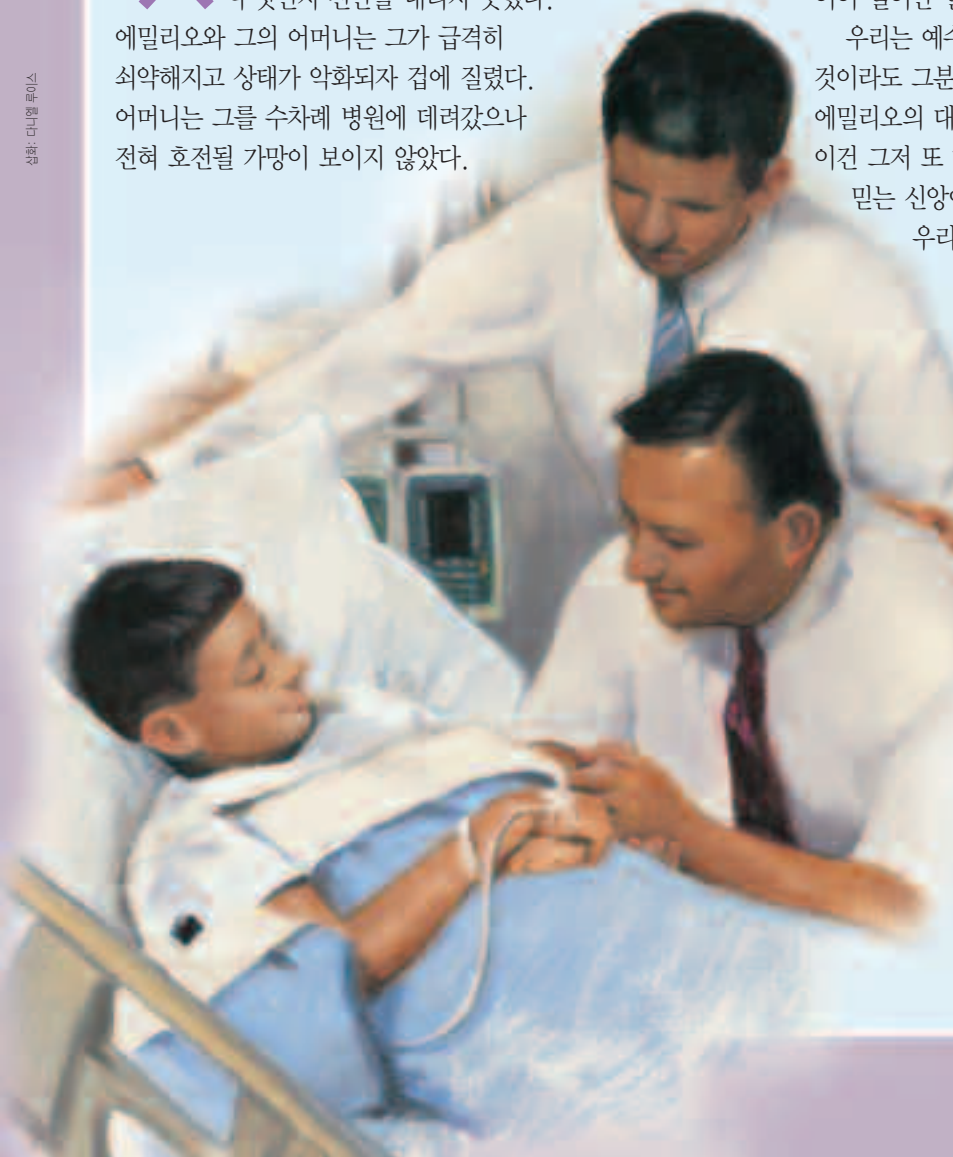
그날 밤 이후 에밀리오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는 어려움 없이 일상 생활로 돌아왔고 교회에도 나올 수 있었다.

에밀리오는 구주께서 지상에 계실 때 행하신 기적과 똑같은 종류의 기적을 다시 행하시기에 충분한 신앙을 행사했다.

나에게 에밀리오는 주님께서 하신 “어떤 이들에게는 병 고침을 받는 신앙을 가지게 해 주며”(교리와 성약 46:19)라는 말씀에 대한 모범이다.

우리의 생활에서 신권을 행사하는 특권을 누리는데,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심을 알고, 그분의 아들에 대한 우리의 신앙에 따라 우리가 이 후기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이다. ■

성화: 다니엘 루이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하나님의 독생자가 몸소
이루신 속죄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이 세상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겻세마네 동산에서

십 이사도 정원회에서 봉사했던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1855~1931)는 젊은 선교사 시절에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강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어느 날 밤 꿈에 ... 나는 겻세마네 동산에서 구주의 고통을 목격했다. ... 나는 가까운 나무 뒤에 있었다. ...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내 오른편에 있던 작은 쪽문으로 들어오셨다. 그리고 세 사도에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른 편으로 가셔서 그분 역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 ... ‘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깨우시고 타이르신 후 돌아가셔서 전처럼
기도하셨다. 이 일이 세 번
반복되었고, 나는 그분의
얼굴과 형체, 움직임 등
그분의 모습에 아주
익숙해졌다. 그분은
고귀하고 당당한, 바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음시키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동안, 내 쪽을 향하고
있던 그분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분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 그분의 큰 슬픔에 대한 순수한
연민으로 함께 울었다. 내 온 마음은 그분께로 향했다. 나는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그분과
함께하기만을 소망했다.

“얼마 후 그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사도들이 무릎을 꿇은 채
근히 잠들어 있는 곳으로 가셨다. 그분은 그들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우시고, 그들이 한시도 그분과 함께 깨어 있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시며 분노나 책망의 기색 없이 부드럽게
나무라셨다.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 그분은 다시 기도하셨으며 사도들에게
돌아오셨을 때 제자들은 또 잠들어 있었다. 그분은 다시 그들을

하나님의 모습이었으나 또한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셨다.

“갑자기 상황이 바뀌는 듯했다. ... 전과는
달리, 그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후였는데, 이제는
구주께서 그 세 명의 사도들과 함께 내 왼편에서 계셨다. 그들은
곧 하늘로 올라갈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나는 나무 뒤에서 뛰쳐나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고는 그분의
다리를 부여잡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간청했다.

“그분은 몸을 숙이시더니 나를 일으켜 세우고 안아 주셨는데
그 친절함과 따스함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경험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 같아서 나는 나를 안아 주신 그분
가슴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런 후 그분은 이렇게



얼굴을 올려다보며
열렬히 간청했다.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당신께 갈 수 있다고
약속해 주세요.’ 그분은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머금은 채 대답하셨다.
‘그것은 전적으로 너에게 달렸단다.’
나는 흐느끼며 잠에서 깨어났고 때는
아침이었다.”¹

예 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아담의 타락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말씀하셨다. ‘아니다, 나의 아들이, 이들은 그들의
일을 마쳤으므로 나와 함께 갈 수 있지만, 너는
남아서 너의 일을 끝내야 한다.’
그래도 나는 여전히 그분께
매달렸다. 그분의 키가
나보다 컸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왜 속죄인가?

구주의 사랑에 찬 희생에 대한 이 감동적이고
개인적인 경험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중요성을 설명하기에 알맞은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몸소 이루신 속죄는
모든 기독교 교리의 가장 중요한 토대이며 이
세상이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위대한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속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회복된 복음의 다른
모든 원리와 계명과 가치는 이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 중요성을 부여 받습니다.²
속죄는 예임되었으나 하나님의 독생자의
자발적인 행동이었으며 그분은 자신의 생명과
영적인 고통을, 아담의 타락이 온 인류에 미친

첫 번째 이미지는 그리스도, 해리 린다스 그림; 토스안탈라스 장인 박해인 에빈 톰슨을 따니여의 일부분, 조셉 브러키, 괴델 사진; 존 토크, 장현 사진; 에벨 리아이어

영향 및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대가로 주셨습니다.

영어 단어인 *Atonement*(속죄)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자명합니다. at-one-ment, 즉 나누어졌거나 분리된 것들을 하나로 합친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분리를 가져오는 아담의 범법 또는 타락으로 인해 필수 불가결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세상에 두 종류의 사망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³ 육체적 사망은 영과 육의 분리를 가져왔고, 영적인 사망은 영육이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타락의 결과로, 지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이 두 종류의 사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타락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성한 계획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이 없었다면 아담과 이브에게 필멸의 자녀가 없었을 것이고, 따라서 인류도 없었을 것이며, 인류가 서로 상대되는 것, 성장, 도덕적 선택의지, 부활과 대속과 영생의 기쁨 역시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⁴

아담의 타락과 이를 보상하기 위한 속죄의 필요성은 전 인류가 영체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관하시는 천국 회의에 참석했을 때 설명되었습니다. 이 천국 회의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의 선택의지를 존중하여 그들의 죄를 대속하겠다고 자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러한 대속의 사랑에 대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겠다고 하셨습니다.⁵

이러한 그리스도의 끝없는 속죄가 가능했던 것은 (1) 그분만이 지상에 살았던 유일하게 죄 없는 사람으로, 죄의 결과로 인한 영적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우셨고, (2)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주님 곁에서 생활함

약 5년 전, 주님은 내게 손을 내미셨고 복음은 나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분의 속죄 덕분에 나는 과거의 선택들로부터 구함을 받았고 마음속 깊이 용서의 기적을 느낄 수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합당하다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 우리의 죄가 잊혀지고 지워질 뿐 아니라 그분의 빛이 우리의 개인 생활과 직장 생활에까지 비치게 된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분의 사랑은 무한하다. 우리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생활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나눌 것이며, 그분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 함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마리 뭉치시앙, 프랑스

신성을 지니고 계셨기 때문에 육체적인 사망⁶을 이길 권능을 가지셨으며, (3) 천국 회의에서 그러한 역할에 예임될 만큼 충분히 겸손하고 의지를 지닌 유일한 분이었기 때문입니다.⁷

그리스도의 속죄의 선물

속죄가 주는 선물의 일부는 만인을 위한 것이고 무한하며 무조건적입니다. 여기에는 인류의 어느 누구도 아담의 범법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신, 아담의 죄에 대한 그분의 속량이 포함되며,⁸ 또 다른 보편적인 선물은 지상에 살았거나 현재 살고 있거나 미래에 살게 될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에게 주어질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선물의 다른 측면들은 조건적입니다. 이 선물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얼마나 부지런한가에 달려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류 가족의 모든 구성원이 자신들의 노력 없이 아담의 죄로부터 대가 없는 면책을 받는 한편,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보이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고, 주님의 교회 회원으로 확인 받은 후 일생을 통해 신앙과 인내로 전진하지 않는 한 그들은 스스로의 죄에 대해 면책을 받지 못합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과제에 대해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육신의 부활은 값없이,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구주께서 죽음을 이기신
결과입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
조건 없이 주어지는
축복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⁹

더구나, 육신의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결과로 온 인류에게 주시는
값없는 선물이지만, 부활한 몸의 유형(또는
“영광의 등급”) 및 부활의 시기는 개인의 일생
동안의 충실함에 직결되어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충실한
자들이 “먼저 일어날”¹⁰ 것임을 명백히
밝혔습니다. 현대의 계시에서도 육신의 부활에
순서가 있다고 밝히며¹¹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한 자들에게만 가장 높은
등급의 영광이 약속됩니다.¹²

물론, 속죄의 무조건적인 축복과 조건적인 축복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주어질 수



없습니다. 속죄의 무조건적인 축복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님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렇다고
해서 조건적인 축복이
전적으로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충실하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므로써
추가적인 특권을 누릴
수 있으나, 그러한
특권은 여전히 대가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 기술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몰몬경은 다음과 같이
강조합니다. “거룩하신 메시아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 면전에 거할 수
있는 육체가 하나도 없음[이라].”¹³

바로 그러한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어린이들과 정신장애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들에게도 구원
받을 방안을 주십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만인에 대한 권능으로 대속을 받으며 죽음 이후에
부활을 기다리는 영들이 거하는 영의 세계에서



충만한 복음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¹⁴

고난과 승리

속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겻세마네 동산으로 가셨고, 휘트니 장로가 꿈에서 본 것처럼 그곳에서 오직 그분만이 감당할 수 있는 영혼의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분은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¹⁵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그분께서 “만인의 고통, 참으로 아담의 가족에게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셨기 때문입니다.¹⁶ 그분은 “죽음에 이르는 것을 제외하고,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시험과 육신의 고통, 주립, 갈증과 피로를 겪으셨으며, 피가 모든 땀구멍에서 내(을 정도로) … 그의 고뇌는 것처럼 [꿘습니다.]”¹⁷

비석에 새겨진 간증

사랑하는 아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신 본향으로 돌아가자 우리 가족은 적절한 묘지를 찾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묘비문에 쉬는 곳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려 할 때 반대에 부딪혔다. 그 표현이 묘지 관리 정책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그리하여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었다. 결국, 그 묘지를 소유한 교회의 목사가 그 표현이 무슨 뜻인지 물어왔다. 나는 구주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 나오리라”(요한복음 5:28~29)고 하신 말씀을 인용하면서 문자 그대로 육신의 부활을 믿는다는 간증을 전할 수 있었다. 나는 무덤이 부활 때까지 우리의 육신이 쉬는 신성한 장소라고 간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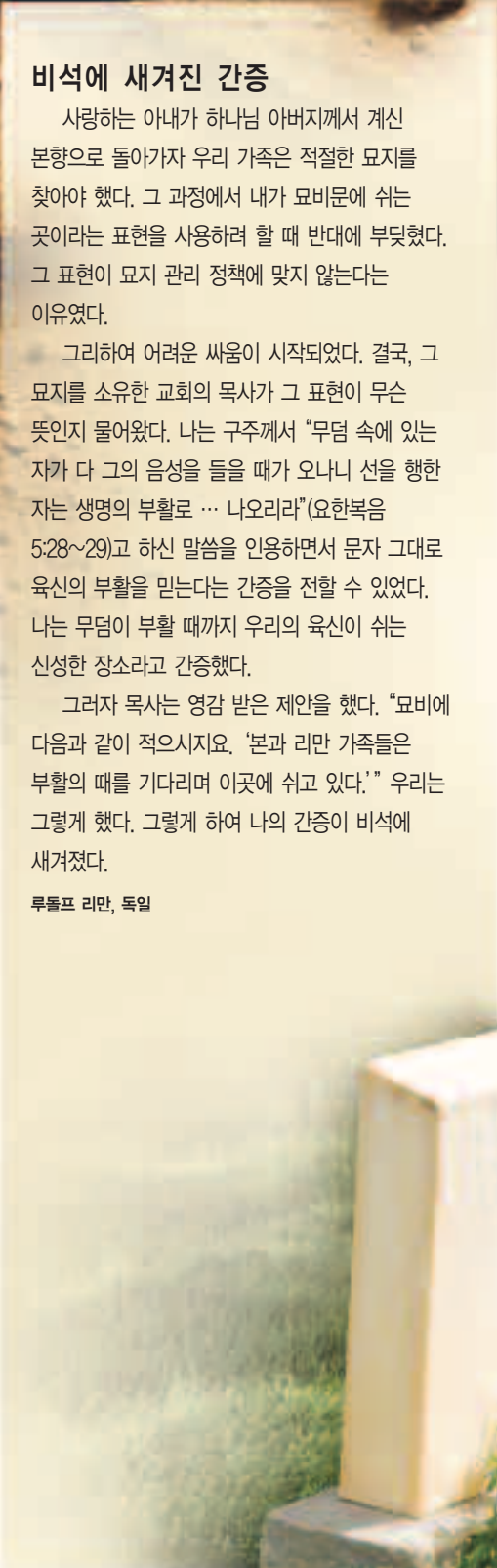
그러자 목사는 영감 받은 제안을 했다. “묘비에 다음과 같이 적으시지요. ‘본과 리만 가족들은 부활의 때를 기다리며 이곳에 쉬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했다. 그렇게 하여 나의 간증이 비석에 새겨졌다.

루돌프 리만, 독일

이러한 고난을 통해 예수께서는 모든 남자와 여자와 어린이들의 영혼을 대속하셨으며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시,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셨습니다.”¹⁸ 그렇게 함으로써 그리스도는 모든 필멸의 생명체들이 경험하는 모든 종류의 질병, 약점, 어두운 절망을 비롯하여 “만물 아래로 내려가셨고” 그리하여 그가 “만물을 이해하였나니 이는 그가 만물 안에 그리고 만물을 통하여 있으려 함이니, 곧 진리의 빛이 되고자 함이라”고 경전은 말합니다.¹⁹

속죄의 절대적 고독과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은 겻세마네에서 시작되었고, 말로 다할 수 없는 로마 병사들과 군중들의 학대 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²⁰라고 부르짖으시던 순간에 그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 고통의 심연 속에서 온 천지 만물도 떨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였습니다.]”²¹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²² 많은 사람들이 “자연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데도다”²³라고 했습니다. 마침내 감당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던 일이



이루어졌으며, 예수께서는 “다 이루었다”²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²⁵ 언제, 어디선가, 모든 인류가 이 모든 것을 목격한 로마의 백부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²⁶라고 고백할 날이 올 것입니다.

사려 깊은 남자와 여자들에게, 자의에 의한 자비로운 한 분의 희생이 공의의 무한하고 영원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모든 인류의 범법과 잘못을 대속하며, 그리하여 그분의 자비로운 팔 안에 모든 인류를 감싸 안을 수 있다는 사실은 “놀랍고도 기이한 일”²⁷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존 테일러 회장(1808~1887)의 말씀을 인용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방식으로, 그분은 이 세상의 죄-아담뿐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죄의 무게까지도 감당하셨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모든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 자들뿐 아니라 책임을 질 나이에 도달하지 못하고 죽거나 그리스도의 율법을 알지 못하고 죽는 인류의 반 이상의 사람들에게도 하늘 왕국의 문을 여셨습니다.”²⁸

휘트니 장로가 이 위대한 선물과 그것을 주신 분에 대해 느낀 바를 우리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분의 모습에 크게 감동했고 그분의 큰 슬픔에 대한 순수한 연민으로 함께 울었다. 내 온 마음은 그분께로 향했다. 나는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했으며, 다른 무엇보다도 오직 그분과 함께하기만을 소망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한 속죄를 이루심으로써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셨으며 그 소망을 실현시키셨습니다. 나머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구주의 자비로운 포용

나는 일생 동안 스스로가 부족하다는 패배감으로 괴로워했다.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러한 감정의 치유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대속으로 인해, 구주께서는 나의 두려움을 이해하시고 성신을 통해 나를 위로하신다. 그분은 나의 약점을 아시고, 그것들을 극복하도록 나를 도우신다. 그분은 나를 절대 홀로 남겨 두지 않으셨으며, 나를 강하게 하시고 나의 마음을 넓혀 주셨다.

내가 세상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나는 스스로 가치 있고 쓸모 있으며 사랑 받고 있음을 느낀다.

수잔 렌트, 미국 유타



주

1. "The Divinity of Jesus Christ", *Improvement Era*, 1926년 1월호, 224~225쪽; 또한 리야호나 2003년 12월호, 16쪽; 부호, 대/소문자 및 철자 수정.
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49쪽 참조.
3. 창세기 2:9; 3장 참조.
4. 니파이후서 2:22~27; 모세서 5:11 참조.
5. 요한계시록 13:8; 모세서 4:1~2; 아브라함서 3:2~27 참조.
6. 요한복음 5:26~29; 니파이후서 9:5~12; 엘마서 34:9~14 참조.
7. 제임스 이 탈매지, *예수 그리스도*, 3판(1916년), 21~22쪽 참조.
8. 신앙개조 제2조 참조.
9. 교리와 성약 19:16~17.
10. 데살로니가전서 4:16.
11. 교리와 성약 76:50~113 참조; 고린도전서 15:40~42와 비교.
12. 교리와 성약 76:50~70; 88:4, 27~29; 132:21~24 참조.
13. 니파이후서 2:8.
14. 엘마서 40:11; 교리와 성약 138편 참조; 누가복음 23:43; 요한복음 5:25과 비교.
15. 마가복음 14:33~34.
16. 니파이후서 9:21.
17. 모사야아서 3:7.
18. 엘마서 7:12.
19. 교리와 성약 88:6.
20. 마태복음 27:46.
21. 누가복음 23:44~45.
22. 마태복음 27:51.
23. 니파이전서 19:12.
24. 요한복음 19:30.
25. 누가복음 23:46.
26. 마태복음 27:54.
27. 제임스 이 탈매지, *신앙개조*, 2판(1978년), 70쪽.
28. *The Mediation and Atonement* (1882년), 148~149쪽, 대/소문자 수정.



속죄의 효력

나는 주님께서 내 아들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들이 내가 바라지 않는 길을 택했을 때 그가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익명

나는 1992년에 네덜란드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가입했다. 남편은 교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우리 아이들인 알렉스와 페트라(가명)가 침례 받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셋은 교회에 참석했고 정기적으로 가정의 밤을 가졌다.

열세 살이 된 알렉스가 더 이상 교회에 나가기 싫고 가정의 밤도 하기 싫다고 선언하기 전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다. 그가 자라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나는 알렉스와 가까이 지내기가 힘들었다. 왜냐하면 그는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동에 대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들을 도와달라고 수없이 기도하며 많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성전에 조용히 앉아 있는 동안, 나는 마음 속으로 한 장면을 보았다. 성찬을 전달하는 청년의 모습이었다. 그것은 마치 주님께서 내게 그분의 속죄의 실재성과 권능에 대해 상기시켜 주시며, 아들을 사랑하고 그의 곁에 있어 주라고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았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생활은 사실상 더욱 힘들어졌다. 알렉스의 아버지와 이혼한 후, 알렉스는 심하게 우울해했다. 나는 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는 나의 도움을 원하지 않았고 내가 그에게 말을 걸 때에도 듣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우리 지부 회장님이 방문하여 알렉스와 이야기를 나눠도 되겠냐고 물으셨다. 알렉스는 짜증스러워 했지만 대화를 하겠다고 동의했다. 지부 회장님과 만난 후 알렉스는 그가 선교 사업을 나가도록 권유한 것에 대해 화를 내며 말했다. “지부 회장님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교 사업을 나가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텐데요. 왜 나를 성가시게 하는 거죠?” 그날 밤 나는 주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다는 것을 알았다.

그 계획은 예상치 않던 방법으로 구체화되었다. 나는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알렉스가 체포된 것이었다. 재혼한 남편과 함께 나는 코트를 입고 알렉스를 데리러 한밤중에 경찰서로 갔다. 우리는 알렉스를 나무라지 않았다. 사실 알렉스의 새아빠와 나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알렉스는 그와 그의 친구가 스쿠터를 훔쳤을 때의 일을 이야기했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진심으로 뉘우쳤다. 나는 처음으로 아들이 잘못에 대해 마음 아파하는 것을 보았다.

체포는 알렉스에게 전환점이 되었고 그는 자신의 행동의 결과와 함께 그가 어디로 치닫고 있는지 깨달았다. 그날부터 참으로 많은 축복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시작했다.

다음날 알렉스가 말하길 자신이 경찰관에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가 우리에게 얼마나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고, 우리가 묵묵히 있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알렉스의 교회 친구들 몇 명 또한 그를 도와 주었다. 한 친구는 그를 교회 활동에 초대했다. 또 다른 친구는 그에게 물문경을 주고 읽도록 권유했다. 그의 난독증에도 불구하고 나는 알렉스가 물문경을 읽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다.

그 다음 축복은 - 내가 실제로 그 모든 축복들을 헤아릴 수 있는지 모르지만 - 알렉스가 교회에 가고 싶으니 양복을 한 벌 사줄 수 있냐고 물었던 것이다. 나는 그가 단지 크리스마스 때를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들은 크리스마스가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교회에 참석했다.

그 다음 축복은 나 자신이 이해하기에도 너무 큰 것이었다. 알렉스가 침례를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그는 나의 도움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았고, 모든 것을 친구들과 그를 가르친 선교사들과 함께 준비했다. 그날이 왔을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아들은 흰 옷을 입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었다.

나중에 그가 자신의 개종 이야기를 할 때, 나는 알렉스의 고통과 슬픔이 그에게 어려운 것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 고통이 그가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할 만큼 그를 겸손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알렉스는 이렇게 설명했다. “어느 날 밤 내가 짊어진 짐이 너무 무겁다고 느낄 때 한 좋은 친구가 언제든

기도로 도움을 간구할 수 있다고 말해 준 것이 생각났어요. 그날 밤 나는 그대로 해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전에 어머니가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기에 나는 무릎을 꿇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가 도움을 간구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로 놀라운 느낌이 나를 감쌌습니다. 나는 그 느낌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느꼈습니다. 나는 내 문제들이 나에게서 사라졌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가졌었던 절망적인 기분을 그 이후로는 느끼지 못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나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원했습니다.”

침례와 확인을 받고 신권에 성임된 후, 알렉스는 성찬, 즉 구주의 희생의 거룩한 상징물을 전달하도록 부탁을 받았다. 내가 여러 해 전에 성전에서 보았던 장면이 정말로 내 앞에서 현실이 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경험하는 것에 대해 엄숙히 감사를 드렸다. 그 순간은 나에게 성스러운 순간이었다.

이야기는 거기서 끝날 수도 있지만 다행히 더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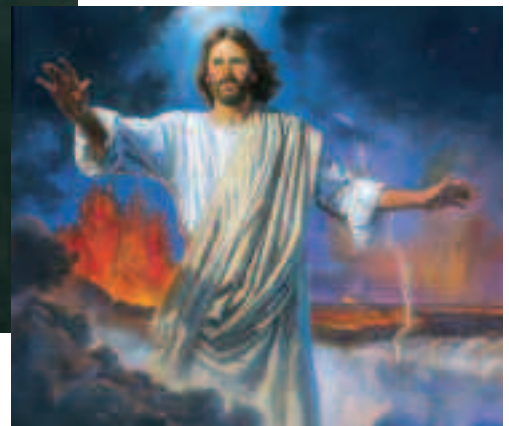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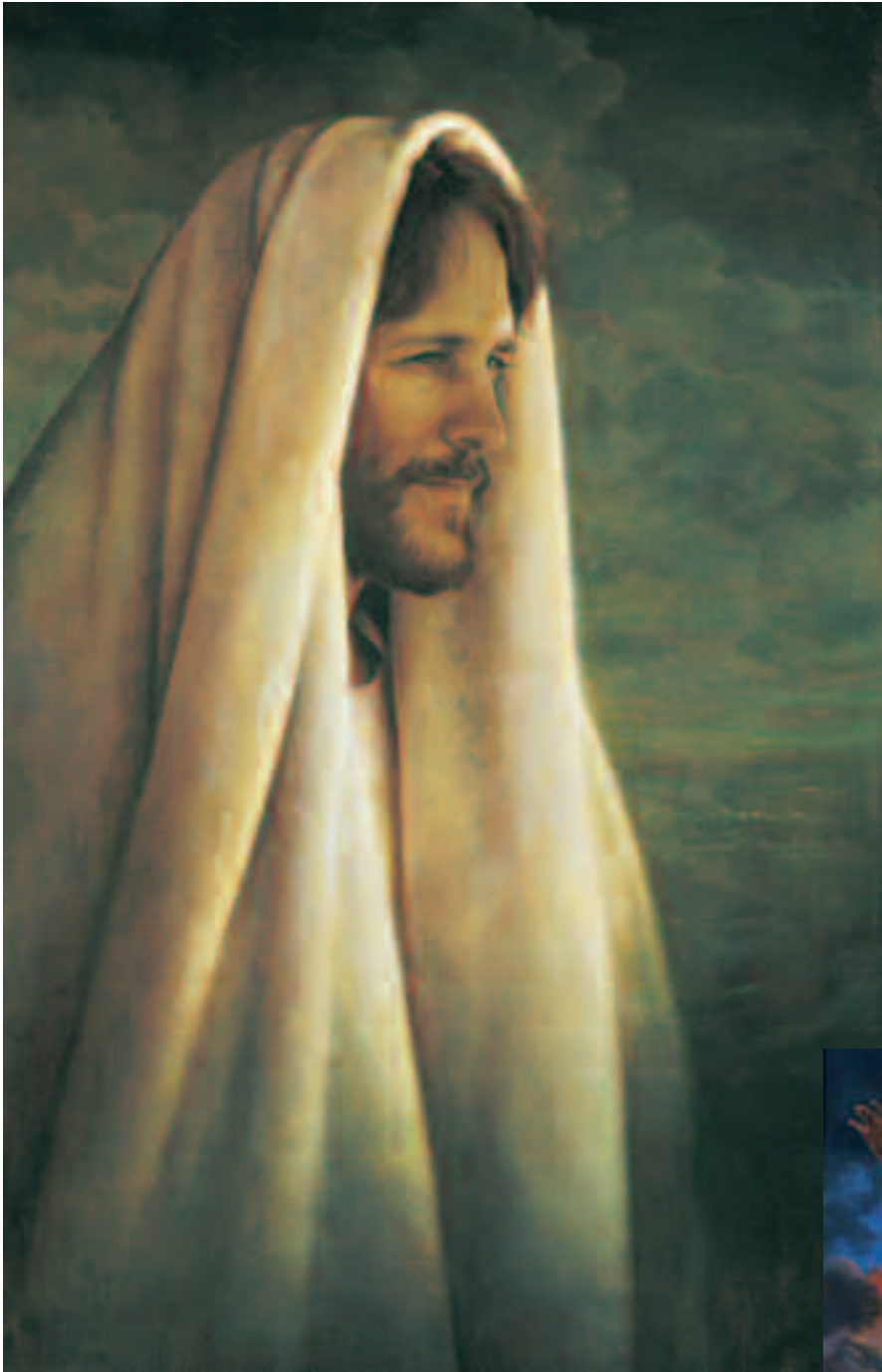
나는 그 이후로 내 아들의 인생에 속죄가 계속해서 효력을 발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영감에 찬 우리의 지부 회장님을 기억하는가? 내 아들의 간증은 계속해서 자라 결국 우리 지부 회장님의 제안은 현실이 되었다. 알렉스는 최근에 선교 사업을 마쳤다. 그는 주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셨던 것처럼 2년 동안 타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도왔다.

나는 알렉스의 어머니인 것에 감사하고, 우리들 모두의 삶에 효력을 발휘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더욱 감사드린다. ■

신 권에 성임된 후, 알렉스는 성찬을 전달하도록 부탁을 받았다. 내가 여러 해 전에 성전에서 보았던 장면이 정말로 현실이 된 것이다.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그리스도

교회 사도들의 간증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친절한 치유자, 그렉 울슨; 온 도시가 한데 모여, 제임스 티소; 예수께 침례를 주는 요한, 해리 앤더슨; 지구를 창조하시는 그리스도, 로버트 티 베렛.

이 천 년 전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며, 그분의 비길 데 없는 삶의 실재와 그분의 위대한 속죄 희생의 무한한 가치에 관해 간증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상에 살았고 또 앞으로 살게 될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도 그토록 심오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구약의 위대한 여호와였고 신약의 메시아이셨습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지시에 따라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요한복음 1:3)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으셨지만 모든 의를 이루시기 위해 침례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사도행전 10:38)셨고 오히려 그 때문에 멸시당하셨습니다. 그분의 복음은 평화와 선의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분이 보이신 모범대로 행하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의 길을 걷고, 병자를 치유하며, 소경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그분은 영원에 관한 진리와 전세의 실재와 지상 생활의 목적과 내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의 잠재력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위대한 속죄 희생을 기억하도록 성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분은 체포되어 무고한 혐의로 정죄 받고 폭도들의 원대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는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속죄하시려고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그분의 속죄 희생은 지상에 살게 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신한 위대한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온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시는 그분의 삶이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다는 사실을 엄숙하게 간증합니다.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분은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린도전서 15:20)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상에 계시는 동안 사랑하셨던 사람들을 방문하셨으며, 고대 미 대륙에 살고 있던 그분의 “다른 양들”(요한복음 10:16)에게도 성역을 베푸셨습니다. 현대에도, 주님은 아버지와 함께 소년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시어 오래 전부터 약속된 “때가 찬 경륜”(에베소서 1:9)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선지자 조셉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눈은 불꽃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눈같이 희고 그의 얼굴은 해보다 더 밝게 빛나고, 그의 음성은 큰 물의 격류 소리 같으니, 곧 여호와의 음성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나는 살아 있는 자요, 죽임을 당하였던 자니, 나는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니라.”(교리와 성약 110:3~4)

이 선지자는 그분에 관해 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

“곧 그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그에게서 여러 세상이 현재와 과거에 창조되었고, 그 곳의 주민은 하나님께로 태어난 아들과 딸들이라 하더라.”(교리와 성약 76:22~24)



메이코 윌리엄스의 프레스코 스투그 국립 역사 박물관 제곱

왼쪽: 산상수훈, 칼 하인리히 블로흐 그림; 왼쪽 아래: 겟세마네에서의 그리스도, 하인리히 호프만 그림; 아래: 십자가의 그리스도, 작가 미상; 오른쪽: 어찌하여 우느냐?, 사이먼 듀이 그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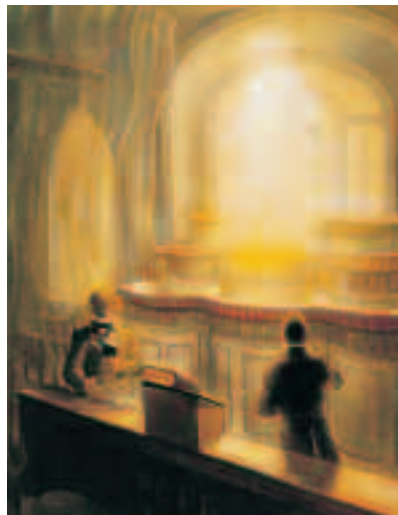
C. HARRISON CONROY CO. 제곱

유타 주 아메리칸 포크 스타일의 ALLIUS FINE ART 제곱





파시엔트 그림.



위: 미 대륙을 방문하신 예수 그리스도, 존 스코트 그림; 왼쪽: 첫번째 시현, 게리 캡 그림; 위: 커틀랜드 성전에서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게리 스미스 그림.

아래: 멜기세덱 신권의 회복, 켄 라일리 그림; 오른쪽: 재림, 해리 앤더슨 그림.





우리는 그분의 신권과 교회가 지상에 회복되었으며 그분의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에베소서 2:20)다는 것을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언젠가 지상에 돌아오시리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이사야 40:5) 그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며 만주의 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또한 모든 무릎이 무릎을 꿇고 모든 혀가 그분 앞에 경배의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그분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와 마음속의 소망에 따라 심판 받게 될 것입니다.

합당하게 성임 받은 그분의 사도로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 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위대한 왕인 임마누엘이시며 오늘날 아버지의 우편에서 계십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이 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2000년 1월 1일자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은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장의회에 의해 서명되었다. 이 사도들의 간증은 리아호나 2000년 4월호에 게재되어 있다.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성약을 맺음

저는 60살이었고 가난했으며, 제 인생은 수치스러웠습니다. 저는 인생이 자기 자신의 향락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고 제 눈은 닫혀 있었는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침례와 확인, 제가 맺은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성약은 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기적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 같이 세상적인 남자가 이렇게 교회 회원이 되고 신권을 소유하고 지부 회장이 되리라고는 생각해보는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제게 크나큰 선물입니다.

비랍 미나산, 아르메니아

그리스도께로 나아옴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라”는 말은 초대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대이며,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초대입니다. 이것은 이 경륜의 시대에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한 이래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대표자들에게 주신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책임은 “경고하고, 해설하며, 권면하며, 가르치며,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¹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회원들은 침례 성약을 받아들이며, 그들이 어느 때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는 제자가 됩니다.² 우리가 증거하는 목적은 사람들을 그분께 나아오도록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이러한 초대를 할 수 있는지 배우는 데 있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어떤 이들은 초대에 응하지 않을 것임을 압니다. 구주께서도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때 몸소 이러한 초대를 하셨지만 극히 소수만이 이에 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음성을 인식한 사람들로 인해 주님은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우리가 초대할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왔을 때 가졌던 우리의 기쁨도 대단했습니다.

그분이 곧 길임을 압

우리의 인생에서 사람들이 이러한 초대에 응했던 일을 숙고해 보는 것은 가치 있는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이 그러한 초대를 받아들였을 때의 유형을 보아 왔습니다. 각각의 경우, 성신은 그들에게 최소한 세 가지 진리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매번 제가 아래에 열거할 순서대로 오지는 않았지만, 이것들은 모두 진실로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어집니다.

첫째, 그들은 이 생과 다가올 세상에서 그들이 가장 원하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임을 느끼게 됩니다. 그들은 물몬경에 있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믿게 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러한 일들이 참되고 또 주 하나님께서 사심같이, 내가 말한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사람이 구원 받을 수 있는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³

이러한 확신은, 많은 목소리를 통해 하나님은 없고, 죄란 없으며, 행복은 쾌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하는 세상에서는 쉽게 느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세상의 구주이심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은사를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목소리는 더욱 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여러분의 삶에 작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여러분 스스로의 경험을 통해 가장 강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움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께 나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속죄가 어떻게 여러분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해 자주 숙고해 보고 감사드리다면, 그분에 대한 여러분의 증거가 다른 이들의 마음에 감동을 줄 힘을 얻게 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증으로 초대 받은 사람들이 이러한 증거를 느낄 때, 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님이요 구주로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영접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여러분과 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할 것입니다.

성약과 순종

둘째, 진정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온, 제가 아는 사람들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물문경을 읽거나 성찬식에 참석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약속들을 지킴으로써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요, 구주라는 신앙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이러한 신앙으로 약속을 지킬 때, 무언가를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느낌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울지 몰라도, 그들은 더 나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에 대한 것일지라도, 순종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져옵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은 회개하는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며 그로 인해 침례 성약을 맺고, 구주의 이름을 받들며, 죄로부터 깨끗해지고자 하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그러한 중요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한 형제는 처음에는 침례의 필요성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온 생애 동안 선하게 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중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른 교회에서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 그러나 두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구주께서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으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침례를 받으셨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구주께서 요한을 찾아가 침례 받으신 것처럼 그도 참된 신권의 권세를 통해 구주와 약속을 맺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르쳤던 또 다른 젊은이는 그가 지은 죄의 슬픔으로 인해 통회하는 마음으로 침례 받겠다고 선택했습니다. 침례의 물가에서 나오면서, 그는 뺨에 눈물을 흘린 채 저를 포용하고는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함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저의 친구이십니다. 저는 그분으로 인해 용서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간증은 제가 더 나은 어머니, 아내, 자매, 친구가 되도록 도왔습니다. 제 간증으로 인해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바라시는 생활, 즉 성실, 정직, 친절, 사랑, 인내, 동정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 봉사하는 생활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저는 다른 사람들도 그분에 대해 알고자 하기를 소망합니다.

조앤나 엠 앨런, 미국 인디애나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저는 깨끗합니다.”

그들이 침례 성약을 맺기로 선택한 것은 공통적인 신앙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구주의 계명에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지키면, 주님께서도 자신들과 맺으신 그분의 성약, 즉 그들을 영생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성약을 지키실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변화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아 언젠가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주님께로 나아올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함

이러한 결과는 제가 진실로 주님께로 나아온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본 세 번째 요소로 인도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받은 직후의 충실한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한번은 제가 선교사였을 때, 저는 동반자와 함께 우리가 가르쳤고 바로 몇 주 전에 침례 받은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부모들은 방 하나를 보여 주기 위해 우리를 지하실로 데려갔습니다. 그 방은 두 딸 중 한 아이가 쓰던 침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언니와 한 방을 쓰려고 방을 옮겼습니다. 그 아이가 비운 침실은 가족이 비상시에 필요로 하게 될 모든 물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비축에 대해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토록 어려운 일을 왜 그리 빨리 했느냐고 묻자, 그들은 교회 잡지에서 주님께서 가족들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기 위해 준비하길 원하신다는 내용을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이것이 후기 성도들이 하는 일이 아닌가요?”

이 단순한 신앙은 구주께서 그들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여겨지는 모든 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려는 그들의 소망은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들은 늘 친절했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보이는 능력도 키웠습니다. 그것은 일생을 통해 주님께로 꾸준히 나아온,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의



그들이 겸손하게 순종할 때 성신을 보내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 신회원과 함께
 방문 교육이나 가정 복음 교육을 갈 때 여러분이
 그에게 기도 하거나

유형이 되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회원 보유와
 유지에 관해 말할 때 회원들이
 떠나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나아오기로 선택한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또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늘 찾아오게
 마련인 시련이 닥쳐올 때 낙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가진 가장 훌륭하고
 믿음직한 친구는 구주와, 그들의
 아버지이시기도 한 구주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구주께서는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키스, 모델: 보즈를 취함

가르치거나 약속을 잡을 기회를 준다면 이것은 사랑의 표현 이상의 더 큰 힘을 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늘의 권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련이 찾아올 때 그들을 북돋아주고, 그들에게 반드시 내려질 하늘의 축복이 올 때 교만해지지 않도록 보호할 것입니다.

마음의 변화

또 하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 그리스도께 나아오라고 초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그분의 사업을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봉사할 때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같이 될 것이며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⁴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움으로써,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가 그분께 나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가까이하고 그분의 화평을 느끼고자 한다면, 그분을 위해 봉사함으로써 가장 성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⁵

주님께서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초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을 지키실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또한 그분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복을 찾음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한복음 14:6)라고 하셨습니다. 제 간증을 표현하는 데 있어 그분의 말씀보다 더 나은 표현은 없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문학, 철학, 역사를 공부했으며 모든 위대한 사상, 이론, 사업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상의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에게라 할지라도 평화, 지혜, 또는 영원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이 밝히신 진리에 순종하면, 이 생에서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생이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돌아갈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끝없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젠츠 린, 대만

그분께로 인도함으로써 그분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십니다.



주

1. 교리와 성약 20:59.
2. 모사이아서 18:8~10 참조.
3. 니파이후서 25:20.
4. 모로나이서 10:32.
5. 마태복음 11:28~30.



나는 구원받았는가?

샤를롯 굿맨 맥이완

내 친구 레이첼이 내게 그녀가 다니는 교회에 함께 갈 수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자신의 종교에 열성적이었으며 나는 그녀의 교회가 내가 다니는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궁금했다. 나는 부모님께 그녀와 함께 가도 좋은지 허락을 구했다. 부모님은 그녀의 예배 시간이 우리의 모임 시간과 중복되지 않으니 가도 좋다고 하셨다.

그녀의 교회에서의 많은 것들이 생소하게 느껴졌다. 찬송가와 기도도 달랐고 설교자가 말하는 방식도 생소했다. 헌금 접시가 전달되자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다.

마침내 그 설교자는 회중 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서 공개적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말했다. 레이첼은 내게 앞으로 나가라고 속삭였다. 나는 망설였다. 우리 와드에서 감독님은 결코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와 공개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하지 않으셨다. 나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어찌면 나는 나의 구원에 있어 중요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나는 당황한 채 그 모임에서 나왔다.

훗날, 이 경험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실제로 나는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권의 권세를 받은 자에 의해 침례 받았다. 나의 침례는 나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나님 아버지와 맺은 성약이었다. 나는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분과 같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의 침례식에는 가족 및

와드 회원들뿐 아니라 증인으로 온 신권 소유자들도 참석했다.

침례 및 확인을 받은 후로도 나는 매주 일요일에 성찬을 취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 스스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겠다고 다시 한 번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왔다.

때때로 다른 교회의 기독교인들이 내 친구의 설교자가 했던 것과 똑같은 질문을 표현만 조금 달리하여 해 올지도 모른다. 그들은 우리가 구원 받았는지 물어올 수도 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고 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다. “기독교인들은 때로 구원 받다 또는 구원과 같은 몇 가지 핵심적인 복음 용어에 다른 의미를 추가합니다. 우리에게 ‘구원 받았느냐’고 묻는 사람의 의도하는 바에 따라 대답한다면, 우리는 ‘예’ 하고 대답해야 합니다.”¹

내가 친구의 교회에 갔을 때에도 나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쌓아가고 있었다. 그때 이후로 나는 경전과 살아 계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복음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 더 많이 준비되고 확신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

주

1.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성도의 빛, 1998년 7월호, 59쪽.



우리가 믿는 것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이 자주 받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한 간략한 답변들이다.

후 기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무엇을 믿는가?
그분은 문자 그대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는가?
그분은 영광 중에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인가? 그분의 은혜는 사람이 구원 받는 데 필수적인가?

이것은 사람들이 교회나 교회 회원들을 처음 접할 때 종종 하는 몇 가지 질문들이다.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교회 회원들은, 우선 성신의 인도에 귀 기울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간략한 답변들도 대답을 준비할 때 고려할 만한 자료가 될 것이다.

여러분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지에서 사셨고 가르치셨던 역사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시기 전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약 삼 년의 성역 기간 동안 성지에서 가르치셨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예: 창세기 49:10; 시편 2:6~7, 22:16~18, 118:22; 이사야 7:14; 미가 5:2 참조) 우리는 그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 고통 받으셨고 속죄하심으로써 회개와 용서를 가능케 하셨음을 믿습니다.(이사야 53:4~6 참조) 우리는 그분께서 죽음을 이기셨고 그분의 권능을 통해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인 육신을 가지고 부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로마서 6:5, 8:11 참조) 우리는 그분의 복음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지상에 오는 하나님의 모든 아들과

딸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과 함께 그분들의 왕국에서 살기 위해 돌아갈 것임을 믿습니다.(베드로전서 3:18; 신앙개조 제3조 참조)

여러분은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다고



나사로, 켈, 워민턴, 블룸호프, 그린, 테이코, 향토로이드, 프랜시스, 노르, 소제, 극림, 역사 박물관, 재공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사도들이 증거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몸으로 수백 명에게 나타나셨습니다.(누가복음 24:39; 요한복음 20:20; 고린도전서 15:3~8 참조) 그분은 또한 부활하신 몸으로 미 대륙에 있던 수천 명의 “다른 양들”(요한복음 10:16)에게 성역을 베푸셨고, 그들에게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 주셨으며, 여러 날 동안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셨습니다.(제3니파이 11~28장 참조)

그분은 그분의 아버지와 함께 1820년에 조셉 스미스 이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이 젊은

선지자에게 고대의 사도들이 죽은 이후로 인간의 철학이 담겨 변경된 그분의 교회와 복음을 회복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1832년 조셉 스미스와 그의 동료 중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남겼습니다. “그는 살아 계시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교리와 성약 76:22~23)

여러분은 그분께서 영광 중에 지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거룩한 경전이 증거하듯이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사도행전 1:11) “내가 알기에는 내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욥기 19:25) “그가 땅에서 자기 백성을 다스리려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교리와 성약 76:63)

더 나아가, 우리는 그분의 부활로 인해 우리 역시 물리적인 육신을 다시 받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욥기 19:26)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현세적 사망의 줄을 푸실 것이라, 모두가 이 현세적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으리라.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앨마서 11:42~43)

여러분은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구원에 필수적이라고 믿습니까?

물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 받거나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로마서 3:23~24 참조) 그분의 은혜를 통해 모든 사람이 부활할 것이며 그분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 3:15 참조) 더욱이, 그분의 은혜를 통해 배우자와 가족과의 신성한 관계가 영원히 계속될 수 있습니다.(마태복음 16:19;

우 리는 예수님께서, 그분이 오시기 전 수세기 동안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고, 약 삼 년의 성역 기간 동안 성지에서 가르치셨으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9:16~22; 누가복음 18:18~23 참조) 후기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행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풍성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후에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은혜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라”(니파이후서 25:23; 강조 추가됨)

비록 우리의 선한 행실이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하게 해 줄 수는 없더라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과 그분이 걸으신 길을 따르는 우리의 충실함에 대한 성실성을 보여 줍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의 구원을 돕는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조셉 스미스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중요하다고 믿습니까?

아니요. 조셉 스미스는 인류 역사상 중요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그가 행한 일은, 구약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졌으나 잃어버린 바 된 지식과 축복을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고대의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구원과 영원의 모든 축복은 구주를 통해서만 올 수 있다고 가르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종교의 기본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간증, 즉 그분은 돌아가셨고, 매장되었으며, 삼 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종교에 관한 다른 모든 것은 단지 그것에 부속되어 있을 뿐입니다.”¹ 또한 이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자신을 회생함으로써 그분께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신 위대하신 주님의 거룩함과 완전함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마음은 그분의 겸손함에 누그러집니다.”² ■

주
1.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년), 49쪽.
2. 가르침: 조셉 스미스, 54~55쪽.

그 분은 부활하신 몸으로 미 대륙에 있던 그분의 수천 명의 “다른 양들”에게 성역을 베풀었고, 그들에게 그분의 손과 발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 주셨으며, 여러 날 동안 그들 가운데서 가르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1:11; 교리와 성약 132:19 참조) 이 영원한 축복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이러한 축복에 합당하게 되고 그것을 받기 위해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경전은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신앙과 순종을 통해 그분의 은혜에 대한 충만한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시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에베소서 2:8~10)

야코보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야코보서 2:17, 24) 그러므로 구주께서는 모든 것을 지켜온 영생을 소망하는 한 젊은 부자에게 아직 해야 할 일이 더



기타 참고 자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 질문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대답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경우, 그들에게 다음의 내용을 제안할 수도 있다.

-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물몬경을 연구하십시오. 이 책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다가 미 대륙 백성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하신 구주의 성역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고대 미 대륙에 있던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분의 가르침은 성지에서 그분이 필멸의 육신을 가지고 성역을 베푸신 동안 그분의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과 일치합니다. 물몬경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해 반복하여 가르치고 간증했습니다.

- 후기 성도 선교사들과 이야기하십시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도록 부름 받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결정을 존중할 것입니다.

- www.mormon.org를 방문하여 “Basic Beliefs” 또는 “Ask a Question”을 선택하십시오.

- www.lds.org(영어판)를 방문하십시오. “About the Church”를 선택한 다음 “Answers to Questions”를 선택하면 자신에게 관심 있는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또는 홈페이지에서 “Gospel Library”를 선택한 다음 “Search Gospel Library”를 선택하면 교회 잡지 및 기타 교회 출판물에서 주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

(*역자 주: www.mormon.org나 www.lds.org는 언어를 한국어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지닌 능력 안에서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칠십인 회장단

사도들은 신권 직분을 통해 세상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 되도록 지명을 받습니다. (교리와 성약 107:23 참조) 그들의 간증은 주님의 구원의 사업에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그러한 일을 홀로 해서는 안 되며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침례 받고 확인 받은 우리 모두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모사이야 18:9)기를 약속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각자가 지닌 능력 안에서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실제로 주님은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데에 “연약한 자들과 단순한 자들”을 신뢰하시며(교리와 성약 1:19, 23 참조),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주 하나님 곧 세상의 구주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려는 것”(교리와 성약 1:20)이 그분의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살아 계신다는 확실하고 개인적인 간증을 얻을 때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가장 근본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라는 확실하고 개인적인 간증을 갖는 것입니다. 고대의 사도들은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셨음을 알았으며 그분의 문자 그대로의 부활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해 그분을 보거나 그분의 면전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간증했을 때 주님은 이러한 지식이 예수님과의 물리적 친분이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이것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마태복음 16:15~17 참조) 예수님은 도마에게 그분을 보거나 만지지 않고도 그가 받은 것과 똑같은 믿음이나 증거를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요한복음 20:29)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증거는 대개 우리가 알거나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사도행전 2:32)라고 말한 사도들의 기록된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분의 예임, 성역, 속죄에 관해 기록된 구약과 신약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성약인 물문경이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목적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에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을 확신시키려는 것”¹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께서 예수를 가리키시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조셉 스미스-역사 1:17)라고 선포하시는 것을 보고 들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간증과 훗날에 이 선지자가 “그에 대하여 드린 많은 간증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에 대하여 드리는 간증은 이러하니, 곧 그는 살아 계신다는 것이니라. 이는 우리가 실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그를 보았고 또 그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증거하는 음성을 들었음이니”(교리와 성약 76:22~23)라고 증거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우리 자신의 눈과 귀로 확실한 간증을 갖도록 해 주는 우리 시대의 특별한 증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모나 조부모나 충실한 친구들의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침례 성약을 맺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대한 특별한 은사를



구주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

저는 제가 11살 때 주님의 교회에 들어오면서 받았던 침례가 그분에 대한 저의 간증의 시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고 복음 원리에 입각한 삶을 살고자 하는 소망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얻게 된 것은 점진적인 과정이었으며 그것은 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커져갔습니다. 저는 종종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우리에게 대한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꼈으며 이로 인해 그분께 더욱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중보자이심을 알게 됨으로써 저에게 증거해 주시는 성령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전에 자주 감으로써 주님과 가까이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 일생을 통해 저의 간증은 자라났고 그것은 오늘날까지 강화되어 왔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의 구주이시며 구속주라는 사실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러한 지식으로 인해 저는 고요한 확신과 화평을 얻었습니다.

조이스 바울러, 영국

받으며, 우리가 얻은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이 참되다는 증거는 성신의 은사와 함께 옵니다. 니파이의 이러한 일이 일어나리라고 다음과 같이 확인했습니다. “또 그때 너희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이 협착하고 좁은 길에 있나니, 참으로 너희는 문으로 들어온 것이라.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의 계명을 좇아 행하였고,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하시느 성신을 받았으니, 이로써 만일 너희가 길로 말미암아 들어섰으면, 받으리라 하신 바 그가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느니라.” (니파이후서 31:18, 강조 추가함)

다른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은 영적인 은사이며 “성신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그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알게”(교리와 성약 46:13) 되는 것은 더 큰 은사입니다.

종종 이 증거는 타는 듯한 느낌, 평화, 확신, 이해력의 증가와 같은 느낌으로 옵니다. 주님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네가 기록해 오고 있는 기록 곧 그 말씀은 참되도다”라고 확인해 준 영적인 느낌으로 몰몬경에 대한 한 가지 증거를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6:17) 그런 다음 주님께서는 “네가 증거를 더 원하면 이 일들의 진실에 관해 알기 위하여 네 마음속으로 내게 부르짖던 그 밤을 생각해 보라. 내가 그 일에 대하여 네 생각에 평강을 말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보다 무슨 더 큰 증거를 얻을 수 있겠느냐?”(교리와 성약 6:22~23)라고 덧붙이셨습니다. 사람의 생각에 평강을 말하는 영이 증거가 주어지는 유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므로 이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경전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함과 같이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었고 [그분의] 말씀을 안다고 증언할 수 있”(교리와 성약 18:36)으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실한 영적 느낌을 통해 그분의 아들을 알고 그분께서 살아 계시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생활을 할 때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구주께서는 서반구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다음과 같은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곧 너희가 본 바 나의 행하는 그것이라”(제3니파이 18:24)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보이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은 그분과 그분의 방식을 반영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크나큰 변화를 경험하는 것과 우리의 얼굴에 그분의 형상을 지니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앨마서 5:14 참조) 주님께서는 같은 맥락에서 그분과 같은 자가 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제3니파이 27:27 참조) 비록 우리가 주님께서 성역을 베푸실 때 그분과 함께하지는 않았지만, 경전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그분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을 봅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 증거할 수 있습니다.

테네시 내시빌에서 함께 지역사회 봉사 활동을 하며 알게 된 한 천주교 신부의 예가 생각납니다. 찰스 스트로벨 신부는 거리에서 한 번에 몇 명씩 남자 노숙자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 기술과 일 할 기회를 제공하는 직업 훈련 프로젝트를 개발했습니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시간을 헌신하여 그들이 평생을 두고 변화하고 자립하도록 도왔습니다. 저는 그의 어머니가 불과 몇 년 전에 어떤 노숙자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랐습니다. 스트로벨 신부는 자신의 소중한 어머니의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자가 속해 있는 무리에게까지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모든 시대의 사도와 선지자들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회개는 주님과,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권능에 대해 증거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구주의 표준에 맞추려고 노력하면서, 우리의 증거가 정당성을 인정 받기 위해 온전함의 경지에까지 이르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1899~1994)은 이러한 과정에서의 인내가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현명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은 평생의 과업이며

여기에는 거의 깨닫지 못할 만큼 더딘 성장과 변화가 포함됩니다. ...

“... 바울이나, 이노스, 라모나이 왕과 같은 상황에 처한 수많은 사람들은 회개의 과정이 더욱더 미묘하고 깨닫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매일매일 그들은 하나님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한 채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들은 조용히 선을 행하고, 봉사하며 헌신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불과 성신으로 침례를 받은 것 같으려니와 그들이 이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제3니파이 9:20; 이탤릭체 추가함)고 한 레이맨인들과 같습니다.’”²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때 그분의 증인이 됩니다.

니파이는 기쁨에 찬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며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하며 또 우리는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하노니, 이는 우리의 자손들이 그들의 죄 사함을 위하여 무슨 근원을 바라보아야 할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니파이후서 25:26) 우리도 이와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면모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행동하고, 말하고, 보이고, 심지어 생각하는 방식은 그분과 그분의 방식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반영하는 생활을 함

제가 모범의 가치에 대한 교훈을 받은 것은 인문학을 공부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교수님은 강의실로 들어올 때마다 급우 중 몇 명이 칠판에 그려 놓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때마다 교수님은 그림을 지워달라고 부탁하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 다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 교수님의 현명하고 겸손한 행동에 매우 감명 받았으며 그분이 어떤 교회에 다니는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교사 토론을 하기로 결심했고 2000년 9월 10일에 침례 받았습니다. 자신의 삶의 방식을 통해 모범을 보여 주셨던 그분은 나중에 저의 지부 회장님이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모범이 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후기 성도로서 그분을 따르는 것이 훌륭한 삶을 살아가야 할 우리의 이유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역시 모범으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김바 카반구, 콩고 민주 공화국



같이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특히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오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니파이가 말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야기[함]”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구주에 관한 우리의 느낌을 서슴없이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종종 우리가 친밀하고 열린 태도로 그분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셨고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관해 토론함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그분을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대일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함]”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을 반영하여 통상적으로 행복한 모습으로 살아감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의 은혜가 [우리에게] 족”하므로 사망과 죄로부터 구속을 받아 그분 안에서 온전하게 되리라는 것을 압니다.(모로나이서 10:32~33 참조) 비록 우리가 실망하거나 심지어는 비극을 경험하게 될지라도 그분으로 인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칠 때,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주 안에서 안식을 찾을 수 있는지 보여 주게 됩니다.(마태복음 11:28~30 참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침”은 분명 전임 및 회원 선교 사업과 관련이 있지만, 그것은 예배 모임이나 주일학교, 또는 그분이 배움과 가르침의 주제가 되는 이와 비슷한 경우에 우리가 하는 행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사나 학생으로 참여하는 것은 그분을 증거하는 한 부분이며, 이러한 참여를 위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하여 예언[함]”은 우리가 영의 권능으로 그분에 대한 간증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고린도전서 12:3 참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이며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의 마음이 조상들에게로
돌이켜질 것임을
간증합니다.(말라기 4:6; 교리와
성약 2:2 참조)

“또 우리[가] 우리의 예언에
따라 기록[함]은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간증을 영구히 기록하는
지혜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간증이 “천사들이
보도록 하늘에 기록되었고 그들이
[우리]로 인하여 기뻐”(교리와
성약 62:3)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과 다른 이들은 그들
중 몇몇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유익을 위해 쓰여졌거나 기록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보고 그로 인해
기뻐할 것입니다.

주님에 대한 성신의 간증을 느끼고,
여러 가지 경험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영이 계속해서 그를 통해 확인과 재확인
받을 때,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주님의
모범의 빛을 들어 올리려고 노력할 때,
또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전하고 그들이 주님에 대해 배우고
따르도록 도울 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받아들이고”(교리와
성약 76:51) 필멸의 삶을 사는 동안 그
간증에 충신했던(교리와 성약 138:12
참조) 자로 헤아림 받기를 원하는 여러분
마음의 소망을 들어 주실 것입니다. ■

주

1. 물론경 표제지.
2. “마음의 큰 변화”, 성도의 벗, 1990년 3월호, 7쪽.

다른 사람들이 그분께 나아오도록 도움

“홉킨스 자매님, 여기 자매님이 금년에
가르치실 10명의 햇님반 어린이들이
있습니다.”라고 초등학교 회장단 보좌가
말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개종자였으며 이
부름으로 인해 겁이 났습니다. 나도 아직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많은 개구쟁이들을 다룰 수
있을까? 그러나 감독님과 초등학교 회장님은
제가 이 벅찬 부름을 받아들일 때 축복 받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저는 복음을 가르치려면 총력을 다해
복음을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매주 풍성한 복음의 빛이 담긴
공과책을 읽고 기도하며 어떻게 하면 이
원리들을 내 생활과 어린이들의 생활에
적용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진 신성하고 근본적인 권리에 대한 간증을
얻었습니다. 저는 영혼의 가치와 고유함을
발견했습니다. 단순한 초등학교 공과는 그분의
고귀한 자녀들의 모습을 빛나게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제가 침례의 물가에 들어갔을 때 가졌던
간증의 씨를 꽃피우게 해주었습니다.

햇님반과 함께했던 그 소중한 한 해는 제
삶을 변화시킨 부름에 대해 영원히 감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그러했듯이,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인해
변화되었습니다.

트리시 이사벨라 홉킨스, 미국 메인 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요한계시록
19:10)입니다. 고대에 그분의 첫 번째
오심을 예언한 사람들처럼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그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와 크고
두려운 날”(말라기 4:5~6; 또한 교리와
성약 2: 128:17~18 참조)에 대비하여
엘리아에 의해 회복된 신권의 권세로
우리의 조상들을 위해 침례와 기타
성스러운 의식들을 수행함으로써,

찬송을 통해 드리는 예배

우리는 음악을 통해
구주께로 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가 슈나이더 자매님처럼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좋겠어. 내가 메넨데즈 형제님처럼 피아노를 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얼마나 많이 이와 같은 말을 듣고 또 생각해 왔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음악적인 재능은 오직 다른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특별한 은사, 즉 우리가 가치 있게 여기기는 하지만 정작 우리 자신은 갖고 있지 않은 아름다운 재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서 음악과 노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우리는 감사를 표현하고 찬양하며, 구주의 회복된 복음을 배우고, 그분의 대속을 기억하며,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십시오

고대 이스라엘이 이집트의 속박으로부터 풀려났을 때,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했습니다”(출애굽기 15:1) 야렛 백성이 바다를 건널 때 “그들[은] 주께 찬송을 [불렀습니다].”(이더서 6:9) 그리고 초기 성도들이 커틀랜드 성전을 헌납할 때 그들은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의 새로운 찬송가 “타는 듯한 하나님의 영”¹을 불렀습니다. 모든 복음의 경륜의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음악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찬송을 불렀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많은 찬송가들은 기쁨과 찬양의 영을 함께 나눕니다. 예를 들면, 널리 알려진 윌리엄 더블류 펠프스의 또 다른 찬송가는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주
우리의 기쁨
우리 축복 주시는 주
낮이면 그들 밤에는 기둥되신 주
우리 왕 우리 구세주세²

찬송가는 또한 다음과 같은 친숙한 가사에 표현된 것처럼 특정한 축복들에 대한 우리의 감사함을 말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을 빛으로 밝히시려
주신 복음 감사하오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어느 날 저는 소파에 앉아 CD를 듣고 있었습니다. 찬송가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찬송가, 192장)가 흘러 나왔을 때 저는 우리 각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사랑과, 겸손, 연민을 기억했으며 저의 마음이 감사로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주님의 영이 저에게 구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해 주었습니다.

세 살 된 아들이 제 옆에 앉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도 뭔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올려다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기 때문입니다. “엄마, 예수님은 엄마를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제 가족의 삶의 일부이십니다. 그분은 저의 생각과 마음속에 계십니다. 그분의 복음은 저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타마라 미란다 마카리오 디 올리베이라, 브라질



풍족한 그 손으로 주신
모든 축복 감사하옵고
즐겨 주의 일하고 계명
힘써 우리 지키나이다³

우리가 이와 같은 찬송가들을 부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계명을 따르는 것입니다. “만일 네가 즐거우면”—즉 우리가 즐겁거나 행복하다면, “노래로, 음악으로, 그리고 찬양과 감사의 기도로 주를 찬양하라”(교리와 성약 136:28)

그분의 복음을 배우십시오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 찬송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친숙한 어린이 찬송가는 우리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관계를 아주 단순하고 아름답게 설명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
날 세상에 보내

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정을 주셨네⁴

개혁자 시대에 쓰여진 다음의 훌륭한 찬송가처럼, 어떤 찬송가들은 복음의 원리대로 사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 줍니다.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어서들 나가자
이 여행이 혹 힘들지라도 하나님 계시니
근심 걱정 다 버리고 힘껏 앞으로 나가자
너희 가슴 부푸리니 모든 것 잘되리⁵

우리에게 가장 사랑 받고 있는 몇몇 찬송가들은 우리 시대에 주님의 선택 받은 선지자들인 그리스도의 종들을 따르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예를 들면,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은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역할이 복음의 회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도록 도와 줍니다.

찬양해 여호와와 대화한 사람
예수 기름 부어 예언자 삼고



말일의 경륜을 시작케 하니
못 왕과 온 백성 경배하라⁶

이러한 찬송가들과 다른 찬송가들을 상고하고 찬송가 책에 언급된 참조 성구들을 공부하면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일상 생활에서 구주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구주의 대속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주를 기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 하나는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의식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찬송가를 부릅니다. 성찬 찬송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상기시켜 줍니다.

구세주 돌아가셔서
율법을 이루셨으니

죄 위한 죽음이었네
사람들 살리시려고
죄 위해 돌아가셨네⁷

귀한 피 흘리시어서
생명 버리시니
죄인 위한 돌아가심
세상 구하셨네⁸

죄 값 인해 못박혀 피 흘리셨으니
그 자비 사랑 현신 내 어찌 잊으리
영화로운 보좌에 무릎 꿇 때까지
경배하고 찬양을 주님께 드리세⁹

사려 깊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른다면 성찬 찬송의 가사는 우리가 구주께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찬을 의미 있게 취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고 항상 그를 기억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 것을 다시 결심하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구주를 따르겠다는 결심은 우리의 많은 찬송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찬송가들을 부를 때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고자 한다는 것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증거하는 것이 됩니다. 예를 들어, 다음의 가사를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가는 길 보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마워요
즐겁게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기쁘게 걸어가리¹⁰

찬송가 “주께서 날 보내시기 심히 원하시는 곳” 역시 비슷한 선언을 합니다.

주님의 돌보심 의지하여
날 사랑하심 아오니
성실한 맘으로 주 뜻 행하고
원하신 대로 되오리¹¹

우리가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찬양, 감사,

내가 받은 축복을 세어 봄

저는 이제 교회 회원이 된 지 15년이 되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에 감사해야 할 더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찬송가가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권위 네 앞길을 막으나
낙심 말라 주는 능히 이기리
천사들이 네게 도움 위안을
너의 여행 끝날까지 주리라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휩쓸어", 찬송가, 142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기쁨을, 그리고 영원한 세상에서는 충분한 기쁨을 찾을 수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이 가능하도록 하셨으며, 구주 덕분에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마리벨 로아이자 디 아란다, 아르헨티나

저는 인도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제가 노르웨이에서 젊은 선교사로서 봉사하고 있었을 때, 저의 선교부 회장님은 선교사들을 함께 모으시고는 우리가 1958년 영국 런던 성전 헌납식의 두 모임에서 노래하도록 부탁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반주를 부탁 받았습니니다.

우리가 성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랍게도 제가 피아노 대신 오르간을 연주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오르간에 대해 아무런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누가 찬송가를 치기에 알맞게 파이프를 조절하는 것을 도와 줄 수 있는지 여쭙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의 절박한 간청을 들으셨고 한 자매님을 보내셔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제가 경건한 전주와 합창 반주를 할 수 있도록 오르간을 조절해 주었습니다.

초조함이 극에 달했을 때, 차분한 느낌이 저를 감쌌습니다. 익숙하지 않고 연습이 안 된 오르간을 연주하면서 저는 구주의 사랑이 저를 인도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합창곡 하나가 끝난 후,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께서 우리 선교부 회장님을 바라보시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훌륭합니다.” 저는 우리가 공연하는 동안 받은 축복에 감동되었습니다. 흠 없는 공연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성스러운 메시아이시며, 평강의 왕자이십니다. 그분은 살아 계시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리차드 브로버그, 미국 아이다호

지식, 기억 또는 결심 등을 비롯하여 어떠한 것이든, 이는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교리와 성약 25:12)

다행히도 주님께서 “오직 아름다운 노래만 내게 기도가 되느니라” 또는 “나는 오직 음악적인 재능을 가진 자들의 노래만 듣노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음악에 관해서도 주님은 우리의 능력보다는 우리 마음의 의도를 더욱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가창력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찬송가를 부름으로써 음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찬송가를 부를 때 우리는 이를 통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

주

1. 찬송가, 31장 참조.
2. “이스라엘의 구주”, 찬송가, 27장.
3. “말일에 예언자 주신 하나님”, 찬송가, 6장.
4. “단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5.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6. 찬송가, 18장.
7. “구세주 돌아가셔서”, 찬송가, 115장.
8. “하나님 지혜와 사랑”, 찬송가, 107장.
9. “예수께서 베푸신 사랑”, 찬송가, 111장.
10. “사랑의 빛 안에 걸어가고”, 찬송가, 192장.
11. 찬송가, 146장.



평범하고 소중한 진리들

우리는 성경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치고 그분에 대해 증거하는 후기의 경전을 갖는 축복을 받았다. 아래는 구주에 관한 스물다섯 개의 진리 및 이와 관련된 경전 구절과 후기의 선지자들의 가르침들이다.(이 도표는 이 주제들에 관한 포괄적인 가르침들의 목록이 아니다. 이 주제들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이번 호 42쪽 “살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사도들의 간증”을 참조한다.)

교리	성경으로부터	후기의 경전과 선지자들로부터
1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은 세 분의 독립된 별개의 인격체이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요한1서 5:7; 또한 마태복음 3:16~17; 사도행전 7:55 참조)	“저는 항상 하나님이 별개의 인격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별개의 다른 인격체이시며, 성신 또한 별개의 인격체이자 영이라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은 각기 다른 인격체로서 세 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조셉 스미스,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i> [2007년], 41~42쪽)
2 아버지와 아들은 살과 뼈를 가지고 계시며, 성신은 영의 인격체이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 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누가복음 24:39; 또한 창세기 5:1; 요한복음 14:9; 빌립보서 3:21 참조)	“아버지는 사람의 것과 같은 만져 볼 수 있는 살과 뼈의 몸을 가지셨으며, 아들도 그러하시니라. 그러나 성신은 살과 뼈의 몸을 가지지 아니하셨고 다만 영의 인격체시니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성신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없으리라.”(교리와 성약 130:22; 또한 제3니파이 11:13~15 참조)
3 신회의 세 구성원들은 목적에 있어서 온전히 일치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전하시라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요한복음 17:11)	“그분들은 개별적인 존재이지만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는 하나입니다. 그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승영을 위한 응대하고 신성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로 결속됩니다.”(고든 비 힝클리, “저는 이 세 분을 믿습니다”, <i>리아호나</i> , 2006년 7월호, 8쪽; 또한 제3니파이 11:27 참조)
4 하나님의 일과 영광은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이다.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폐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디모데후서 1:10; 또한 요한복음 3:16~17; 고린도전서 15:22; 히브리서 9:11~12, 28 참조)	“보라,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또한 교리와 성약 29:43 참조)



리아호나 2008년 3월호 69

교리	성경으로부터	후기의 경전과 선지자들로부터
<p>9 예수님은 육신으로 아버지의 독생자이다.</p>	<p>“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한복음 1:14; 또한 요한복음 3:16 참조)</p>	<p>“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리라는 것을 아노라. 참으로 그는 아들이시오, 아버지의 독생자시오, 은혜와 자비와 진리가 충만하시도다. 보라, 세상의 죄, 참으로 자기의 이름을 굳게 믿는 각 사람의 죄를 제하러 오시는 이가 그이시니라.”(앨마서 5:48; 또한 앨마서 9:26; 교리와 성약 93:11 참조)</p>
<p>10 예수님은 인류에게 완전한 모범이 되신다.</p>	<p>“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요한복음 13:15; 또한 베드로전서 2:21 참조)</p>	<p>“우리가 존재하는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는 흠 없고, 결점 없이, 순수한 육신으로 머무셨던 그분의 형상과 일치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 앞에 모범을 보이시고 또 하나님의 완전성의 표준,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 그리고 아버지께 대한 순종의 표준을 세우시기 위해 오셨습니다.”(조셉 에프 스미스, <i>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i> (1998년), 151쪽; 또한 니파이후서 31:16; 제3니파이 18:16 참조)</p>
<p>11 주님께서 그의 필멸의 성역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p>	<p>“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에베소서 4:11~12; 또한 마태복음 16:18; 누가복음 6:13 참조)</p>	<p>“우리는 초대 교회에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직 즉 사도, 선지자, 감독, 교사, 축복사 등을 믿는다.”(신앙개조 제6조; 또한 제3니파이 12:1 참조)</p>
<p>12 구주께서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그의 생명을 바치셨다.</p>	<p>“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마태복음 26:28; 또한 이사야 53:5~6; 요한1서 2:1~2 참조)</p>	<p>“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께서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 “그 고난은 만유 가운데 가장 큰 자 곧 하나님인 나 자신을 고통으로 말미암아 떨게 하였고 모든 구멍에서 피를 쏟게 하였으며, 육체와 영이 모두 고난을 겪게 하여 — 내가 그 쓴 잔을 마시지 않고 물려서려 하게 하였느니라 — “그러할지라도 아버지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나는 마셨고 사람의 자녀들을 위한 나의 준비를 마쳤느니라.”(교리와 성약 19:16, 18~19; 또한 니파이전서 11:32~33 참조)</p>



교리	성경으로부터	후기의 경전과 선지자들로부터
<p>13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실 수 있었다.</p>	<p>“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사도행전 4:12)</p>	<p>“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며 하나님의 권능을 지니셨던 고로, 그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p> <p>“어떠한 필멸의 존재도 다른 모든 필멸의 존재를 그들의 잃어버리고 타락된 상태에서 구속할 수 있는 권능이나 능력이 없으며, 다른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버림으로써 다른 모든 필멸의 존재들에게 전인류의 부활을 가져오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p> <p>“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한 사랑의 구속적인 행위를 성취하실 수 있었고, 또 기꺼이 그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예수 그리스도 —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 <i>Tambuli</i>, 1990년 12월호, 5쪽; 또한 엘마서 34:8~10 참조)</p>
<p>14 예수님은 죽음의 사슬을 끊으셨다.</p>	<p>“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 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고린도전서 15:20; 또한 요한복음 14:19; 고린도전서 15:54 참조)</p>	<p>“이제 현세적 사망이라 일컫는 사망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죽음심이 이 현세적 사망의 줄을 푸실 것이라, 모두가 이 현세적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으리라.” (엘마서 11:42; 또한 모사이야서 16:7~8; 엘마서 22:14 참조)</p>
<p>15 예수님은 세상의 구주요 구속주이시다.</p>	<p>“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요한1서 4:14; 또한 누가복음 2:11 참조)</p>	<p>“또 그는 만일 사람들이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려 한다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시느니라. 이는 보라, 그가 만인의 고통,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이라.”(니파이후서 9:21; 또한 교리와 성약 66:1; 모세서 1:6 참조)</p>
<p>16 예수님은 신약의 메시아이시다.</p>	<p>“여자가 가로되 메시아야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p> <p>“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요한복음 4:25~26; 또한 누가복음 4:16~21 참조)</p>	<p>“참으로 나의 부친이 예루살렘을 떠나신 때로부터 육백 년에, 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가운데 한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라 하셨으니, 곧 메시아야 즉 달리 말하자면 세상의 구주시라.”(니파이전서 10:4; 또한 니파이후서 2:26; 모세서 7:53 참조)</p>
<p>17 주님은 고대 미 대륙의 “다른 양들”에게 성역을 베푸셨다.</p>	<p>“또 이 우리에게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요한복음 10:16)</p>	<p>“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그들도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이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한 그 양이라.”(제3니파이 15:21; 또한 제3니파이 19:2~3; 26:13, 15 참조)</p>

교리	성경으로부터	후기의 경전과 선지자들로부터
<p>18 예수님은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증보자요 변호자이시다.</p>	<p>“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증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디모데전서 2:5; 또한 요한1서 2:1 참조)</p>	<p>“너희 마음을 들어올리고 즐거워하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아버지께 대한 너희의 변호자가 됨이니”(교리와 성약 29:5; 또한 니파이후서 2:27~28; 교리와 성약 45:3~5 참조)</p>
<p>19 주님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시다.</p>	<p>“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또한 시편 27:1; 요한복음 1:9 참조)</p>	<p>“대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세상의 빛과 생명이라-어둠에 비치는 빛이로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교리와 성약 45:7; 또한 모사이야서 16:9; 교리와 성약 12:9 참조)</p>
<p>20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도우실 수 있다.</p>	<p>“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히브리서 2:18; 또한 이사야 53:5 참조)</p>	<p>“또 그가 사망을 짊어지시리니, 이는 그의 백성을 결박하는 사망의 줄을 푸시려 함이요, 또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리니, 육체를 따라, 그의 심정을 자비로 충만하게 하사, 육체를 따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연약함을 좇아 어떻게 도울지 아시고자 하심이니라.”(앨마서 7:12; 또한 교리와 성약 62:1 참조)</p>
<p>21 구주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다.</p>	<p>“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린도후서 5:17; 또한 요한1서 5:4 참조)</p>	<p>“모든 인류, 참으로 남자와 여자,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이 반드시 거듭나야 함을 기이히 여기지 말라. 곧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 속되고 타락된 상태에서 의로움의 상태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구속함을 받아 그의 아들과 딸이 되어야 하나니, “또 이같이 하여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이를 행하지 않는 한,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모사이야서 27:25~26; 또한 모사이야서 5:2, 7; 앨마서 5:14 참조)</p>
<p>22 주님은 후기에 그분의 초기 교회를 회복하셨다.</p>	<p>“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사도행전 3:20~21; 또한 마태복음 17:11 참조)</p>	<p>“또한 이 여러 계명을 받은 자들이 이 교회의 기초를 놓으며, 온 지면 위에서 유일한 참되고 살아 있는 교회를 희미한 데서 그리고 캄캄한 데서 이끌어 나아오게 할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나 주는 이 교회를 매우 기쁘게 여기노라.”(교리와 성약 1:30; 또한 교리와 성약 20편 참조)</p>

교리	성경으로부터	후기의 경전과 선지자들로부터
<p>23 예수께서는 그분의 선택된 선지자들을 통해 그분의 교회를 인도하십니다.</p> <p>24 예수님은 훗날 지상에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p> <p>25 주님은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p>	<p>“[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에베소서 2:20)</p> <p>“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사도행전 1:11;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16; 요한계시록 1:7 참조)</p> <p>“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사도행전 17:31; 또한 시편 9:8; 이사야 11:3~4 참조)</p>	<p>“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교회는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 지상의 머리 되시는 분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고든 비 힝클리, “교회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i>Ensign</i>, 1992년 11월호, 53쪽; 또한 교리와 성약 21:1~5 참조)</p> <p>“무릇 나는 권능과 큰 영광으로 하늘의 모든 무리와 함께 하늘에서 나 자신을 나타내어 천 년 동안 지상에서 사람과 더불어 의롭게 거하리니, 악인이 견디지 못하리라.”(교리와 성약 29:11; 또한 교리와 성약 34:6; 모세서 7:62~64 참조)</p> <p>“곧 누구든지 회개하고 내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충만하게 될 것이요, 만일 그가 끝까지 견디면, 보라, 내가 세상을 심판하러 설 그 날에 내가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죄 없다 할 것이라.”(제3니파이 27:16; 또한 교리와 성약 19:1~3 참조)</p>





예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18:4; 또한 1~5절 참조)

그분의 사랑의 팔에 안기어

로나 리 알 앤더슨

우리의 아들 놀런이 겨우 한 살이었을 때 그는 척수 뇌막염 합병증과 관련된 뇌졸중을 앓았다. 현재 열네 살인 그는 혈액을 몸의 한 곳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순환시켜 주는 기능의 문제와 학습 장애, 그리고 반신 마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의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놀런은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잘 해내고 있다. 그가 달성하는 모든 이정표들도 우리에게 커다란 기쁨을 가져다주고 있다. 그는 상당한 인내심과 결단력을 발전시켰다.

남편인 라이언과 나, 그리고 그 외 다섯 명의 아들들은 놀런과의 경험을 통해서 영적으로 많이 성장했다. 때때로 우리는 실망하고, 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지만 곧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세어보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 우리 각자를 위해 갖고 계신 사랑과 염려를 인식하며 놀런이 여섯 살 때 응답 받았던 기도를 기억하고 있다.

놀런이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신이 서지 않던 어느 날 저녁, 남편과 나는 놀런의 복지에 대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주님께 간구하는 동안 특히 우리는, 놀런이 자신의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반응을 보일 것인지 걱정을 표했다. 우리는 놀런이 구주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있도록 진심으로 간구했다.

다음 날 아침 놀런은 내가 식사를 준비하고 있던 부엌으로 곧장 들어왔다. 보통은 아침식사 전에 형이나 동생들과 놀던가 아니면 소파에 누워 있곤 했는데, 그날 아침에는 조리대 의자 위로 기어올라와 나를 올려다보며 “어젯밤에 꿈을 꾸었어요”라고 매우 진지한 모습으로 말했다.

나는 놀런이 진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곧바로 그의 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나는 “정말? 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니?”라고 물어보았다.

놀런은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저를 안아 주셨어요”라고 간단하게 대답했다.

나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과 구주가 아버지께 대한 우리의 변호자이시라는 간증을 갖고 있다. 그분들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신다. 그분들은 우리의 필요 사항과 우리의 능력을 알고 계신다. 그분들은 우리를 어떻게 도울지 알고 계신다.

모로나이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고, 진정한 의도를 지니며, 진실한 마음으로 간구할진대, 그는 성신의 권능으로 너희에게 이것의 참됨을 드러내어 주시리라.”(모로나이서 10:4~5) 나는 이 경건 구절이 몰몬경에 대한 간증을 얻는 것뿐 아니라 우리가 진지하게 응답을 구하는 다른 모든 질문들에도 적용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난관이나, 비탄이나, 시련에 직면할 때 우리의 마음은 비통하리만큼 진지하며 우리의 의지는 강렬하고 진실하다.

나는 연구와 봉사, 그리고 성신을 통해서 복음을 배울 수 있었던 구주의 교회의 한 회원이 될 수 있음에 감사드린다. 나는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돕고 위로하시며 인도하심을 알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나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감으로써 “[그분의] 사랑의 팔에”(교리와 성약 6:20) 안길 수 있다는 것을 안다. ■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크리스티 러쉬 반즈
교회 잡지

당시 리스 대학이었던 브리검 영 대학교-아이다호의 신입생으로서 나는 가족이 그리웠다. 하지만 나는 몇 달 동안 수업을 들으면서 적응을 했고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었다. 그 전화가 왔을 때는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던 중이었다.

“크리스티, 너에게 안 좋은 소식이 있단다.”라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께서 오늘 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단다.”

내가 방금 들은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북받치는 감정이 밀려왔다. 불과 며칠 전에 나는 아버지를 뵈었다.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그것은 우리 와드의 회원들에게도 충격이었다. 아버지는 53세밖에 되지 않으셨고 우리 와드의 감독으로 봉사하고 계셨다.

그 후 며칠 동안 가족과 친구, 와드 회원과 이웃들로부터의 조문과 전화가 이어졌다. 우리는 주변 사람들에게서 커다란 사랑을 느꼈다. 아버지의 장례식에서 가족들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추억을 나누었고, 우리는 구원의 계획과 사후의 삶에 대해 간증했다.

아버지는 충실한 남편이자, 헌신적인 후기 성도였고, 활발한 스카우트

지도자였으며 훌륭한 아버지였다. 그가 살아온 삶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다. 장례식이 끝나자 큰오빠가 무덤을 헌납했고 함께 선 우리는 찬송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찬송가, 187장)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으며 흐느껴 울었다.

장례식 다음 날, 나는 학교로 돌아왔다. 학교로 돌아오는 것이 그리 내키지는 않았지만 나는 내 삶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나의 책임들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날들은 다른 날들에 비해 좀 더 수월했다. 나는 많은 시간 동안 아버지에 대해 생각했고 구원의 계획에 대한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어려움과 의문들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시리라는 신앙에 의지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약 2주가 지난 후에, 나는 나의 느낌과 아버지의 죽음에

일 지를
적어내려
가면서 나는

영을 아주 강하게 느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매우
뚜렷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관련해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기 위해 일지를 가지고 캠퍼스에 위치한 교회 건물로 갔다. 일지를 적어내려 가면서 나는 영을 아주 강하게 느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특별히 나를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며 내가 절대로 혼자 남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매우 뚜렷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내가 일지를 다 적었을 때 근처의 학생회관 복도대에 설치되어 있던 스피커에서 찬송가 “내 구주 살아 계시다”(찬송가, 68장)를 연주하는 종소리가 들렸다. 즉시 이 찬송가의 다음 가사가 내 마음속에

떠올랐다.

내 구주 살아 계시다
큰 은혜 주는 이 말씀
한때 죽으시었으나
영원히 사시는 줄세 ...
내 두렵 모두 없애고
눈물 씻어 주시는 주
맘의 고통 위로하시며
모든 축복 나눠 주시네

나는 나의 구속주가 살아 계시며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을 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셨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버지와 이전에 돌아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시 살 것임을 안다. 이러한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위안인가! ■



지 친 남자는
간절한
손길로
도시락을 받고서 그것이
마치 소중한 보물인 양
들고 있었다.

예상치 못한 부활절 만찬

매리언 몬슨

부활절은 내게 있어 항상 특별한 공휴일이었다. 교회 모임을 마친 후 부모님은 가족들에게 대속과 부활에 관한 공과를 가르치셨고, 저녁에는 훌륭한 만찬을 즐기곤 했다. 친구들도 종종 즐겁고 맛있는 저녁식사에 함께 참여하곤 했다. 이러한 전통 때문에 부활절은 가족들이 함께 모여 구주의 부활을 경축하는 성스러운 가족 시간이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명절이 되었다.

런던에서 공부하고 있던 어느 해에 나는 부활절을 혼자 보내게 되었다. 우리 와드는 오후 늦게 모임을 갖기 때문에 아침 시간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다. 나는 멀리 떨어진 곳에서 나만 빼놓고 부활절을 축하하고 있을 가족들에게 생각이 미치자 공허함과 슬픔을 느꼈다.

처음에는 자기연민에 빠지고 싶었지만 나는 곧 이 날을 뜻 깊게 보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기 시작했다. 나의 마음은 번잡한 지하철역에서 내가 매일 지나쳤던 사람들에게로 향했다.

대부분의 큰 도시에서처럼 지하철역은 흔히 구걸을 하는 노숙자들의 거처가 되곤 했다. 나는 자주, 그들의 필요 사항에 대해 동정심을 느껴왔고, 내가 런던에서 부활절을 혼자 보내는 유일한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다. 갑자기 낯선 사람들을 돕는 것이 내가 그동안 누려 왔던 훌륭한 부활절에



대한 감사를 보여 주는 좋은 방법처럼 보였다.

나는 샌드위치, 과일, 과자 및 음료수가 든 도시락을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리고는 지하철역으로 가서 내가 때때로 기피했던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다. 그들 대부분은 내가 제공한 음식에 대해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하고 말했다.

도시락이 하나만 남았을 때 나는 특별히 지쳐 보이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다. 그의 옷은 지저분했고, 그의 얼굴은 그가 겪은 고생으로 찌들어 있었으며, 그의 눈은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다. 내가 그에게 마지막 남은 도시락을 건네자 그는 놀라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이게 뭐죠?” 그가 물었다.

“점심이에요.” 내가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다. 그의 표정은 갑자기 기쁨과 감사로 바뀌었다. 그는 간절한 손길로 도시락을 받고서 그것이 마치 소중한 보물인 양 들고 있었다.

나는 그의 표정에 감동되어 “천만에요. 행복한 부활절 되세요.”라고 말했다.

“당신도 행복한 부활절 보내세요!” 그가 대답했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베냐민 왕의 말씀이 생각났다. “우리는 모두 구걸하는 자가 아니냐?”(모사이사서 4:19) 나는 구주 없이는 우리 모두 쫓겨나서, 짓밟힌 채 홀로 남게 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구주는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제공해 주신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고, 다시 살게 될 것이며, 언젠가 그분께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이다.

죄와 죽음을 직면하면서, 나 또한 주님 앞에 구걸하는 자로 서게 된다. 그분은 나에게 손을 뻗쳐 자비를 베푸신다. 언젠가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얼굴도 내가 방금 만났던 겸손한 노숙자의 얼굴에서 조금이나마 볼 수 있었던 깊은 감사를 담고 있을 것이다.

집으로 걸어오면서 나는 울기 시작했다. 나의 외로움은 사라졌고 대신, 기쁨과 베냐민 왕의 말씀과 구주의 자비에 대한 깊은 이해가 채워졌다. 나는 그 노숙자가 나에게 준 예상치 못한 선물에 대해 마음속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렸다. 나는 그에게 간단한 점심식사를 제공했을 뿐이었지만, 그는 나에게 참된 부활절 만찬으로 보답해 주었다. ■

구주의 구조의 손길

스캇 맥코이

내가 아칸소 주에서 자라고 있던 어느 여름, 이웃이 나에게 며칠 동안 미시시피 사디스 가까운 곳의 큰 저수지에서 야영과 낚시, 수영을 하자고 제안해 왔다. 우리는 온갖 야외 활동을 즐기며 며칠을 보냈다.

마지막 날, 우리는 집에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수영을 하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과 비치볼 던지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만 공이 내 머리 위로 날아가더니 몇 미터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 바로 그때 바람까지 불어 공은 물 표면을 타고 내게서 더 멀어져 갔다. 나는 공을 잡기 위해 수영을 하기 시작했지만 계속 부는 바람으로 인해 공은 내가 뻗은 손으로부터 조금씩 더 멀어져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수영할 수 있는 지역의 경계를 표시하는 부표에까지 다다랐다. 공은 부표를 넘어

저수지의 중심부 쪽을 향해 바람을 타고 멀어져만 갔다.

내가 부표에 다가갔을 때, 나는 그것을 지나쳐 수영하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공은 내 앞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 나는 그것을 잡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무엇보다도 나는 인명 구조 과정을 이수했고 자랑스럽게 그 과정의 기장을 수영복에 새겨 넣었었다. 나는 물속에서 편안함을 느꼈고 내 자신이 공을 회수할 수 있을 만큼 강인하다고 자신했다.

하지만, 바람은 계속해서 공이 내 손에 닿지 못하게 만들었다. 때때로 나는 공과 아주 가까워져서 손끝으로 만질 수도 있었지만 공이 다시 멀어져 가는 것을 봐야만 했다. 마침내 돌풍이 불어와 공을 내게서 멀리 보내 버렸다.

휴식을 취하기 위해 멈추기 전까지 나는 내가 얼마나 멀리까지 수영했는지





보 트에 있던 그
남자처럼
구주께서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구하러 오셨다.

깨닫지 못했다. 그곳의 물은 수영할 수 있는 얇은 곳의 물보다 훨씬 검고 찬 것 같았다. 내가 물가 쪽을 돌아봤을 때, 나는 저수지의 중앙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비치볼을 포기하고 물가로 다시 헤엄쳐 가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피곤했고 지쳤지만 걱정하지 않았다. 나는 젊었고 괜찮을 것이라고 여겼다.

하지만 내가 물가로 돌아가려고 할 때, 비치볼을 보냈던 그 바람이 이제는 나를 방해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영을 해도 별 진전이 없는 것 같았다. 팔 다리는 아프고 쭈시기 시작했다. 나는 힘을 재충전하기 위해 멈춰서 개헤엄을 치며 떠 있었다.

그때 나는 귀에 익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모터보트 소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배를

탄 한 남자가 내 옆에 배를 세우고는 물가까지 태워 주겠다고 제안해 왔다. 나는 행복했고 인심이 되었다. 팔 다리의 힘이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배에 올라 탈 힘조차 없어서 한 팔을 배 옆에 걸친 채 그 낯선 사람이 천천히 얇은 물에까지 데려다 주는 동안 배에 매달려 있었다. 나는 부표를 하나 붙잡았고 배를 떠나 보내며 고맙다는 인사로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물가로 헤엄쳐 왔다.

십오 년 후에 나는 다시 한번 곤경에 빠진 나 자신을 발견했다. 오랫동안 나는 죄의 저수지에서 헤엄치고 있었다. 세상의 것을 우선시함으로써 중요하지 않거나 아예 가치가 없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나를 결국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 내 힘은 바닥이 났으며 희망은 사라지고 있었다. 내가 쫓던

것들은 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남아 있었고 어두움이 나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 같았다.

나는 필사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울부짖었다. 보트에 있던 그 남자처럼 구주께서는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나를 구하러 오셨다. 주님은 그분의 후기 선지자를 통해 나를 물몬경으로 인도하셨다. 그분은 나를 회개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침례의 물가에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 주셨다. 그분은 나를 높고 훌륭한 상태로 이끌어 주셨으며 그 이후로 나는 그곳에 머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저는 후기 성도예요

우 리 아들 니콜라스가 다섯 살이었을 때 그는 우리 도시에서 가장 좋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그 학교는 다른 교회에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니콜라스는 그 교회의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느 날 학교와 그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분이 니콜라스를 예배당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니콜라스에게 왜 그가 학교의 종교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니콜라스는 “저는 후기 성도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교회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니콜라스가 마음을 바꾸도록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니콜라스는 “저희 부모님은 선생님의 교회를 존중하도록 가르치셨어요. 하지만 저는 후기 성도인 것이 좋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이 대답을 받아들였고 더 이상 니콜라스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좋은 모범이며 부모인 우리들에게도 그러합니다.

루즈 예시니아 모레노 리베라, 콜롬비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12)

큰 사랑

작 은 사고로 인해 저는 지팡이를 사용하며 천천히 걸어야 했습니다. 계단은 저에게 무척 힘들습니다. “자, 어서요. 제가 함께 가드릴게요.”라고 말하는 부드러운 목소리와 함께 조그마한 손이 내 손을 잡는 것을 느꼈던 그 일요일 전까지, 교회에서 저는 항상 계단에서 넘어질까 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아래를 내려다보았고 아홉 살 된 가브리엘의 자신에 찬 웃음을 보았습니다.

저는 “좋아, 지금부터 네가 나를 돕는 거야. 가자꾸나!”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도 가브리엘에게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한 할머니를 발견했고 자신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 가브리엘과 함께 저는 두려움 없이 계단을 내려갑니다.

저는 후에 가브리엘의 부모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제가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주 일요일에 가브리엘이 저에게 보여 주는 큰 사랑입니다. 가브리엘은 친절한 거인입니다!” ■

노마 라모스 디 올리베이라, 브라질

